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각국元首級 訪韓러시 내년上半期까지
加·阿洲2國·南美·아세안등 8~9개國

정부는 全斗煥 대통령의 아세안5개국巡訪과 이에 앞선 지난2월 韓美頂上회담이 큰 외교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분석, 앞으로 세계 各友邦國들과의 頂上회담을 통한 협력증대방안을 모색중인것으로 알려져 금년 下半期와 내년上半期에는 頂上외교의 러시가 일것같다.

지금까지 알려진 頂上외교 계획에 따르면 오는 9월 트뤼도 캐나다首相이 全대통령과의 韓·加頂上회담을 위해 來韓할 예정이며 아프리카지역의 2개국 元首가 금년 10월 런던에서 열리는 英聯邦회의를 전후해서 訪韓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年末과 금년初 美洲지역을 巡訪한 정부特使의 외교적 노력으로 南美지역 2개국의 국가지도자가 訪韓의사를 통고, 현지의 議會등의 …를 얻는대로 年內에 來韓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全대통령이 이번 아세안巡訪을통해 아세안5개국 원수및 국가지도자들과 가진 일련의 頂上및 수뇌회담에서 이들 지도자들의 訪韓을 초청했고 공동성명을통해 5개국 모두가 이를 수락한만큼 이가운데 2~3개국 지도자가 빠르면 年內,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으로 訪韓, 全대통령과 答訪형식의 頂上회담을 벌일것으로 외교소식통은 내다보고있다。

이밖에도 금년 연말 또는 내년초에 있게될 全대통령과 스즈끼(鈴木善幸) 일본수상간의 韓日頂上회담까지 포함하면 금년下半期와 내년上半期안에 한국정부와 頂上級회담을 벌일국가는 8~9개국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18일『오늘날과같이 複雜多岐한 국제사회의 풍토위에서는 국제회의나 실무당국자간의 관행적인 접촉보다는 국가원수간의 직접적인 交驩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이런의미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頂上회담러시는 한국외교정책의 중대한 變化』라고 설명했다。

이소식통은 또 일부 아세안 국가지도자들의 年內 答訪가능성에대해 『全대통령의 이번 아세안巡訪에서도 밝혀졌듯이 10·26사태이후의 국내 혼란을 짧은기간내에 수습、국내政情과 경제발전을 회복한 한국지도자에 대해 아세안5개국지도자 모두가 많은찬사와 깊은호기심을 느끼고있기때문에 가급적 빠른시일안에 한국에와서 직접 그 상황을 보고싶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볕週末

浦項36度…不快지수 높아
電氣·水道사용량도 최고記錄
淸凉음료 날개돋친듯 팔려

무더위가 하루하루 숨가쁘게 절정으로 치닫고있다。장마가 끝난뒤 5일째 무더위가 계속되자 전국의해수욕장과 유원지에는 1백만이 넘는 피서객이 몰리기 시작했고 에어컨과 선풍기、냉수욕때문에 전기와 수도물의사용량이 최고기록을 나타내는 등 각가지 진기록이 나오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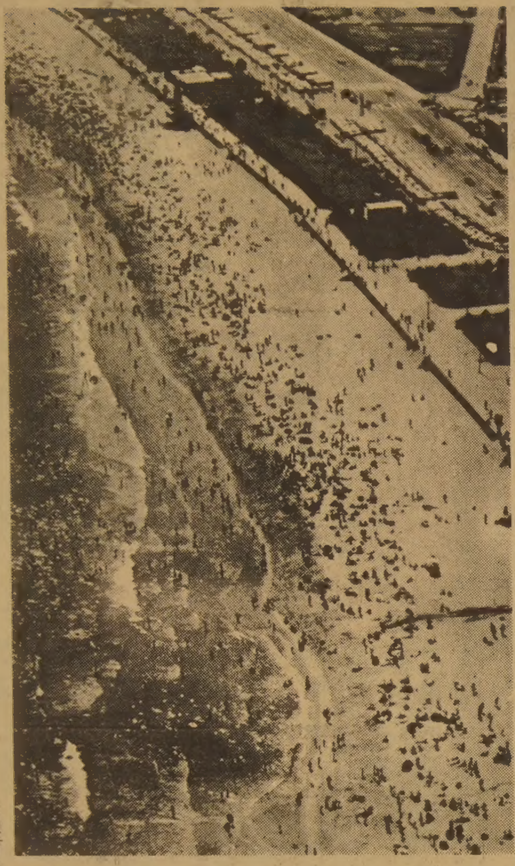
치안본부 집계에 따르면 휴일인 지난17일 부산 海雲臺의 30만명을 비롯 전국의 해수욕장과 유원지에는 1백10만명의 피서객이 몰려 더위를 식혔으며 무더위가 계속된 일요일인 19일에는 올들어 가장많은 1백50만명정도가 피서지를 찾아 나선것으로 보고있다。

또 지난 17일 전국에서는 33건의 익사사고가 발생、올여름 최고기록인 35명이 숨졌다。

전력소비량도 크게늘어 장마기간중인 10일전만해도 시간당 평균사용량이 4백83만㎾였으며 피크타임의경우 5백38만㎾였으나 15일부터 소비량이 급증하기시작、16일엔 평균사용량5백5만9천㎾、피크타임5백82만7천㎾로 한전80년사상 최고를기록、지난해 최고사용량보다 17%나 늘어났다。

또 서울시민의 17일 하룻동안 수도물 사용량도 2백86만톤으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는데 이는 수원지 시설용량 3백7만톤의 93%에 육박하는 양이다。

이밖에 맥주、사이다등 청량음료도 날개돋친듯팔려 빙과류상가와 함께 즐거운 표정이고 초반부터 맹위를 떨치는 무더위로 불경기속에서도 얼음상사가 흥청거리고있다。한편무더위로많은사람들이 밤잠을설쳐 더위병에걸리는사람이늘어나고 있는데 전문의들은 더위를먹게되면 정도에따라 어지럽고 나른해지며 기억력을잃게되는등 가벼운중상을 보이기도하지만 때로는의식을잃을정도의 일사병으로까지 발전할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海水浴場등 百萬避暑人波 연5일째 무더위가 계속되자 전국의 해수욕장은 인파로 뒤덮였다。사진은 18일하오의 부산 해운대해수욕장。해운대에는 공휴일인 17일30만인파가 몰렸었고 일요일인 19일에는 50만이 넘을것으로 보인다。【18일下午2시30분 本社 세스나機上에서 韓隆기자찍음 金海日항공부차장조종】

下旬부터 例年날씨
南部지방2~3도 높은기온 유지

전국이 모두 30도를웃도는 불볕더위는 내주에 진정을이룰것같다。

중앙관상대는 18일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발달로 휴일인 19일 전국의최고기온은 30~36도의 분포로올들어 가장무더운 날씨를보이겠다고 예보했다。

5일째 무더위인 18일 浦項은 예년보다 7.6도나높은 36도까지 수은주가 치솟아 전국최고기온을 보였으며 大邱·釜山이 35.1도 江陵34.7도、光州33.8도 全州33.6도、晋州33.4도 東草33.3도、수산32.6도 서울31.6도등 모두 30도이상을 기록했다。

또 불쾌지수도 浦項이 85로 전국에서 최고였으며 서울은 81이었다。

관상대에 의하면 이같이 높은 기온은 예년보다 江陵浦項등 동해안 지방이 7~8도、大邱지방은 4~5도、서울등 나머지 지방은 2~3도가 더 오른것인데 올해는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권에 들게되어 고온다습현상을 보이게됐다는것。

관상대는 이불볕더위가 중부지방의경우 이달하순 중반까지 피크를이루다 후반부터 소강상태에 들어가 예년과비슷한 기온을 보이겠다고밝히고 남부지방은 이달말까지계속 예년보다 2~3도가량높은기온이 지속될것으로 전망했다。

全世界에 暴暑기승

【東京18日=宋孝彬특파원】대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일본열도는 장마가 걷히고지난일주일간 줄곧 쾌청한날씨에 32도를 오르내리는 폭서가 계속되고있다。

18일 정오 東京의 기온은 33.7도습도55%불쾌지수82로서 무덥고 짜증스러운날씨。북부도시인 삿뽀로도 29.9도까지 올랐으며 센다이(32.7)나고야(33.5)후꾸오까(32)등 전국의 도시가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해발 6천6백35m인 후지산만이 8도의 서늘한 날씨를 보이고있다。

한편 18일의 최고 기온은 뉴욕이 31도、중동의 베이루트가 32도、남미의 리오데자네이로 32도、홍콩 33도、싱가포르는 31도를 기록、7월의 폭서는 전세계적으로 한껏 기승을 부리고 있다。

盧政務제2長官에 全대통령이任命狀

全斗煥 대통령은 18일상오 청와대에서 盧泰愚 신임政務제2장관에게 임명장을 주었다。이자리에는 南悳祐국무총리와 金溶植 총무처장관이 배석했다。【사진】

이機、베이루트 무차별爆擊
對팔게릴라報復확대 民間등 7百여명死亡
레바논南部 3面공격

【텔아비브·베이루트17日 AP=聯合】이스라엘은 17일 7년만에 처음으로 레바논수도 베이루트를 공습、인구조밀지역의 팔레스타인 게릴라거점들을 강타하는 동시、레바논 남부에 대한 陸·海·空3面공격을 단행、남부레바논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의 주요보급로를 파괴하고 3년전 남부레바논 침공이래 하루 사상자로는 가장많은 7백20여명의 사상자를 내게하는등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에 대한 보복공격을 확대했다。

이스라엘軍 대변인은 이스라엘전투기들이 2일전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의 로키트포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날 …년이래 처음으로 베이루트의 인구조밀지역에대한 공습을 단행、약30분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산하 최대단체인 알·파타본부건물등을 파괴하고 무사히 이스라엘기지로 귀환했으며 베이루트공습과 함께 남부레바논에 대한 해상공습을병행하여 자라니江과 하타니江에 있는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의 보급로와 기지들을 맹타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의 와파통신은 베이루트와 남부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날공격으로 다수의 민간인을 포함、1백34명이 죽고 5백87명이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날단행된 이스라엘의 베이루트공습은 팔레스타인게릴라들과의 전쟁에서 민간인들의피해를 극소화하려는 종래 이스라엘의정책에서 이탈한것으로 목격자들은 이스라엘전투기들이 강의가 진행중인 대학교와 2개의 피난민수용소、적어도 5개아파트건물및 베이루트중심부에 있는 주택지역을 맹폭、폭연으로 뒤덮인 베이루트는 질려진 시민들의 차량홍수와함께 공포의 도시로화했으며 수백명의 민간인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베긴 이스라엘수상은 이스라엘의 베이루트공습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의 거점이 위치한 곳이라면 인구조밀지역이 가리지않고 폭격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의 이스라엘공격을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했다。

千여名死傷 레바논安保理호소

【유엔本部18日AP=聯合】레바논은 18일상오(한국시간) 긴급거 소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하루전 단행된 베이루트에 대한 이스라엘의대규모 공격으로 3백여명이사망하고 8백명이 부상했다고 밝히고 安保理에 이같은 대량학살을 즉각 중지시켜 주도록 호소했다。

美 F16供給보류 이의 레바논 空襲관련

【워싱턴17日UPI=聯合】美행정부는 17일 이스라엘의잇단 레바논공습과 관련、美F16전투기의 對이스라엘 인도재개여부에 관한 결정을 또다시 연기했다。

딘·피셔국무성대변인은 이날하오 뉴스브리핑을통해 당초 18일 내려질 예정이었던 이 결정이 빨라도 오는 21일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라면서 이 전투기의 對이스라엘공급문제에 관한 검토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성의 다른 대변인은 이문제에 관해 레이건 대통령의 결심이 이미 서있다고 말했었다。

安保理 對이 自制촉구 宣言文초안

【유엔本部18日AP=聯合】15개국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의 레바논수도 베이루트폭격과 관련、17일 비공개회의를열고 레바논에서의「폭력행위」종식을 긴급촉구하는 선언문채택문제를 검토했다。

이선언문은 安保理회원국들이 『폭력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이지역에 평화와 평온이 이룩되도록 최대한 자제해줄것을 긴급히 호소한다』고 말하고있으나 이스라엘의 국경정착촌에 대한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의 로키트포공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학자·宗敎人교류 확대합의
韓·印度문화협력위 어제폐막

韓·印度양국은 18일 3일간의 文化協力위원회를 끝내고 양국간의 우호와 문화교류를 증진하기위해 학자、종교인、교사、언론인、전문가의 상호교류를 넓히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외무부회의실에서 열린 3일간의 회의를 폐막하고 한국은 ▲印度에서 근무할 한국어 교사1명 ▲한국의 불교문화와 古代유물에 관한 전문가 2명을 印度에파견하고 印度는 ▲힌두語강사 1명과 韓·힌두語사전편찬을 위한 힌두어전문가 1명 ▲2명의한국대학원생에게장학금을 지급하며 ▲신서기문화전문가1명 ▲불교예술및 문화전문가 1명을 각각한국에 파견키로 합의했다。

콜럼비아 大統領도 頂上회담희망 밝혀

【보고타=李成俊特派員】콜롬비아 대통령은 17일하오(현지시간) 『韓·콜롬비아양국의 전통적인 긴밀한우호협력관계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가능하다면 頂上외교를통해 이같은 양국관계를深化·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수 있을

한국일보 무료배부
—우편파업기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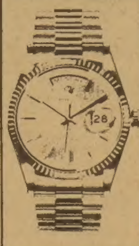
地平線

차를 타고、도심을지나며 짜증이 나는것은 무더위 탓만은 아니다。차선을 지킬줄 모르는 택시에、앞을 막는 버스의 멍치。그러다가 지하철 공사장 곁에서 차가 막히면 한번 두번 신호가 어져도 꼼짝할 수가없다。좋은 날의 聖人·君子라도 짜증이 날 것이다。▼근래 조사로는 운행시간이 정해져 있는 서울시내버스가 시간을 낼수 없어야 단이란다。조사된 노선의 평균거리 26.78㎞의 주행시간이 평균 54분34초로 책정이 돼있으나、법을 지켜 운행하자면 13분24초가 더걸린다는 것。택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요금의 시간·거리 並算制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있다。▼그만큼 서울 거리의 차량주행이 더디다는 얘기겠지만、더 딱한것은 그런 틈새에 끼인 병원 응급차의 사이렌소리다。버스야 운행시간 조정이 가능하고、택시는 並算制라도 해본다고 하지만、응급차가 벌이는「생명과 시간의 경주」에는 그런 代案이 없다。만에하나 내가 그런「경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어떻게될까。▼어렵잖은 의학상식으로「드링커의 生存曲線」이라는 것이 있다고한다。사고나 쇼크로 호흡이 정지된 사람을 心肺蘇生術—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로 되살릴수있는 확률을 나타낸 곡선이다。그에 의하면 심장이 멎은 상태라도 3분안에 손을 쓰면 75%를 회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5분이 지나면 그수치는 25%로 뚝 떨어진다。▼세계보건기구가 66년에 발표한 교통사고에 관한 보고서도 신속·적절한 응급조치만 가능하다면 전세계 교통사고 사망자의 18%는 살릴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일이 있다。그러니「생명과 시간의 경주」는 남의 일일수만은 없다。그것은 바로 내 목숨을건「3분간의 승부」다。그렇게 본다면、우리 응급체제나 교통여건은 사뭇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이런 판국에서、아쉬운것이 시민들의「自衛」다。蘇生術을 익혀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얘기다。먼 외국은 말고、일본의 경우는 東京에서만 1백40만의 시민에게 蘇生術을 교육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우리 경우도 바람직하기는 한 가족중 한 사람은 蘇生術을 터득하고 있어야 한다。도심 가까운 교통사고는 그렇다 치고、물가와 산속 피서지에서 더 요긴한 것이다。[illegible] 익사사고가 27명에 달했다는 보도를 보며 이중에 살만한 사람이 죽은이는 없었을까 생각해 본다。

社會漫評

全國이 「사우나」권…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412
은 : 온스당 US 8.85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출품마감
사진대회

지난 6월6일 나이아가라에서 열린 사진촬영대회 작품 출품이 오는 30일 마감됩니다.

마감일 : 81년7월30일
제출처 : 본사(1025 DUPONT ST. TOR.)
(1025 DUPONT ST. TOR.)
새한칼라현상소
(630 BLOOR ST. W.)
킴스카메라
(619 BLOOR ST. W.)
출품종목 : 흑백, 칼라
8"×10" 이상
스라이드
(135mm 120mm)

한인사진협회
한국일보사

어디로 모실까요? IATA

모국방문 특별요금
요금 : 성인왕복 $1180+(세금) $12.50
어린이 왕복
(2~12세) $645+(세금) $6.25
출발일자 : 8월7, 14, 21, 28일
대한항공 뉴욕경유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 A BLOOR ST. W. TORONTO,
B) 535-8801 R) 293-9970
최동주

Addison
BUICK
PONTIAC
CADDILLAC
Cadillac

원재훈
새차와 중고차 LEASING

전 북미주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GM의 신형모델 J2000가 에디슨에 나와 있읍니다. 각종외국 수입품보다 Engineering. Technology. Gas Mileage에서 월등하며 GM역사상 가장 센세이숀널 J2000를 시운전 해보시고 북미의 이 새로운 Feeling을 체험해 보세요.

ADDISON BAY at COLLEGE
(B) 964-3211 Howard Won

美 10年이상 不法체류자 永住權주기로

海外노동력 年5萬名씩 2년동안 유치

새移民정책 레이건승인

【워싱턴17日AP=聯合】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에 10년이상 불법체류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입법의 美이민정책개혁안을 승인했다고 美행정부관리들이 17일 전했다.

이 관리들은 이법안의 일부가 각료들간의 논란을 불러일으켜 지난 16일에야 겨우 대통령에게 새 법안이 전달됐다고 전하고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내주중 공식발표될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들이 밝힌 개혁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영주권부여=미국내에 10년이상 거주한 외국인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

▲연간 5만명의 외국노동력을 2년간 유치하는 내용의 해외노동력 잠정유치계획 마련.

▲불법체류외국인들을의식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주에게 5백~1천달러의 벌금부과.

▲미국에 대한 불법해상입국을 저지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해 주도록 의회에 요청한다.

▲지난 80년의 『쿠바 난민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대책마련.

소식통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내 수십만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사면제의등 다른 여러 방안을 거부하고 이같은 방법을 택했다고 전했다.

日 방위력增強계획 修正

76년확정 극동蘇軍위협등 政勢변화로

三原 前방위청장관

【東京18日=宋孝彬특파원】집권自民黨은 일본의 방위력증강을 조속히 대폭적으로증가해야한다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76년도에 확정된 現방위력증강계획의 수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미하라 (三原)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이 18일 밝혔다.

前방위청장관인 미하라 회장은 일본의 방위계획요강은 76년 미끼내각때 작성된것으로 ①국제정세의 긴장완화를 전제로 한것이므로②이제는 당시와는 다른 긴박한 정세와 극동 소련군의 증가를 전제로한 새로운 요강 작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하라 회장은 방위력증강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의견은 자민당 전체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자신의 발언은 자민당 간부의 사전양해를 얻은것이라고 밝혔다.

穩健派 압도적當選

波共黨中央委 카니아 제1서기 再選유력

【바르샤바17日AP=聯合】폴란드공산당특별당대회는 黨제1서기선출에앞서 실시된 중앙위원선거 제1차비밀투표에서 17일 카니아 현黨제1서기(54)를 비롯한 온건파가 주축을이룬 1백86명의새위원을 뽑아 카니아제1서기가 재선될수있는길을 다져놓았다.

이날 발표된 제1차투표결과는 강경파는물론 급진파의 주요인물들까지 패퇴시켜 온건파에게 예상밖의 승리를안겨주었다。카니아黨제1서기는 압도적인 승리를차지한후 밝은 표정으로 당대회장에나타나 열렬한 환영을 받은것으로 전해졌다。

16일밤 투표후 18시간만에 완료된 개표결과에따르면 카니아黨제1서기가 1천3백55표、야루젤스키수상이 1천6백15표를 얻었으며 또한 카니아의 강력한 도전자로 부상한 親蘇강경파 올쇼프스키와 부수상 라코프스키는 각각、1천90표와 1천85표를얻어 당선이됐으나 카니아에비해 2백50표정도적어 당제1서기도전에 암운을 던졌다。

◇스타니스와프·카니아 폴란드 共産黨제1서기가 17일 黨중앙위원으로 선출된뒤 당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있다。【바르샤바17日AP電送=聯合】

美、쿠바駐屯蘇軍공격

蘇서 페灣 석유수송로 遮斷땐

WP紙: 와인버거對應전략

【워싱턴17日Ⅲ=聯合】美국방성은 소련이나 그대리국들이 페르시아灣 석유수송로를 차단할경우 전세계의 소련취약지역을 공격、이에 대응하는 군사전략을 마련했다고 워싱턴·포스트紙가 17일 보도했다。

포스트紙는 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이 美陸·海·空軍및 해병대 최고지휘관들에게 보낸 전략지침을 인용、국방성이 소련이나 그대리국이 페르시아灣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쿠바주둔 소련전투여단을 공격하는등 소련의 다른 취약지역을 대응수단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포스트紙는 와인버거장관이 이 전략지침에 따라 각軍최고지휘관들이 오는 83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군사력증강계획에 필요한 예산신청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와인버거장관은 이지침에서 미국이 공격받는 지역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미국은 유사시 다른지역을 위협、敵의 취약점을 노림으로써 이를 대응수단으로 삼을수있다고 강조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와인버거장관은 또 美國이 예고없이 발생하는 분쟁지역에 신속히 대처할 능력을 보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동성을 확보할 세밀한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紙는 보도했다。

◇제2의 마릴린·먼로 작고한 美여배우 마릴린·먼로와 생김새와 태도가 흡사한 캐나다 퀘벡州 세인트·레오나트드市 나이트·클럽여급 샤론·데·살(21)양。【몬트리올(캐나다)17日AP電送=聯合】

메아리

「防音權」

인간은 언제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한다。온갖 공해로 부터 생활을 보호 받을수 있는「環境權」이 날로 절실해 진다。

몇년전만 해도 솟구치는 고층으로 日照權에대한 시비가 요란했다。1978년 처음으로「日照權은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나와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에 깊은 관심이 쏠렸었다。남의 햇볕을 가리는 행위도 공해로 규정된 것이다。

햇빛과 볕을 못보게 하는일 못잖게 우리삶을 시들게 하는것이 소음공해다。

지금 웬만한 중소도시에서 조차 山寺와 같은 조용한 옛 주거환경은 찾아 볼수 없다。

특히 서울은 완전히 소음에 압도 된 상태다。지난봄 환경청은 한국표준연구소에 의뢰 하여 서울의 소음지도를 만들었다。이 소음지도를 펴보면 대부분의 주택가는 55~6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제표준기구 (ISO) 의 소음권고 기준치는 55데시벨 이하라고 한다。65데시벨이상이면 주거지역으론 아주 부적당하다。그런데 4대문안 중심가와 간선도로변 주택가는 거의 65를 넘어섰고 한강변 아파트지역은 75데시벨 이상의 소음속에서 살고 있는곳도있다。이정도면 지하철이 달리는 소리만큼 요란하게 시끄럽다。

서울시는 앞으로 고속도로나 강변도로변 또는 지하철 지상주변에 새아파트를 지으면 소음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다。당연한 일이지만 기존주거지역에도 어떤 획기적인 소음방지 대책이 세워졌으면 한다。

30도를 오르내리는 요즘같은 무더위엔 문을열고 잘수밖에 없다。도둑만큼 무려운것이 바로소음이다。심야를 진동하는 오토바이轟音、이른새벽 약수터에서 터지는 高聲들이 남의 단잠을 깨운다。

「밤의 적막」이란 동화의 세계가 되어버렸다。日照權의 법적보호를 받는 시민들은 다시「防音權」을 주장하지 않을수없다。

고대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그에게다가오는 알렉산더대왕에게「좀 비켜주시오。햇빛을 가리지 않게…」라고 말했다。이 철학자가 오늘 서울에 다시 태어났다면 아마 새로운 환경권을 주장 했을것이다。『너무 시끄럽소…。제발 소음을 줄여 주시오』

아파트 한채 폭삭 곳곳서 屍體찾아 아우성

이機공습 쑥밭된 팔難民村

게릴라本部 불바다·시민車輛 뒤엉켜 교통지옥

【베이루트17日AP=聯合】이스라엘전투기들이 공습을 감행한 베이루트市의 사브라 팔레스타인난민촌에、기자가 도착했을때 12세난 소년이『시체를 보러가자』고소리쳤다。

팔레스타인 게릴라본부가 모여있는 아부·살레街에서는 공습이 지나간지 5시간이 지난후에도 구조대원들이 파괴된 건물더미를헤치고 사체발굴을 계속하고있었으며 불도저들이 불타고있는 건물잔해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산산이 부서진콘크리트속에서 『여기도! 여기도!』하면서 사체를 발굴하기에 바쁜 움직임을 보였으며 대부분이 10대로 보이는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시민들의 운집을 막기위해 거리를 쏘다니며 하늘에다 공포를 마구 쏘아댔다。

부서진 7층짜리 아파트모퉁이에서 親蘇 팔레스타인해방민주전선(PFLP)대변인 다우드·발라니씨는 이스라엘의 공습목표가 PFLP、아라파트의 알·파타、親이라크 아랍 해방전선등 3개단체의 사무실이었음에 틀림없다고 말했다。5백명이상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고 전한 그는 하비브 美중동특사가 이번 공습을 묵인했다며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전투기들의 공습으로 PFLP본부가 소이탄에 휩싸였으며 인근의 한 아파트는 통째로 폭삭 주저앉았을뿐아니라 또다른 건물은 벌집됐다。

한 젊은 게릴라는『그들이 사용한 폭탄이 1천파운드』라고 주장했다。

17일아침 35분간의 공습이 진행되는동안 아부·살레街는 자동차와 시민들이 뒤엉켜 교통지옥을 이루었다。

목격자들은 이스라엘함정의 포격으로 美國소유의 정유소에서 해안에 이르는 소형 파이프·라인에 화재가발생、검붉은 불기둥이 치솟았다고 말했는데 시돈港과 자라니간의 교통차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大空襲에 廢虛된 市街地 17일 베이루트근교의 팔레스타인 게릴라거점에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있은후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의 불도저가 파괴된 건물의 부스러기들을 치우고있다。【베이루트17日AP電送=聯合】

베트남軍 철수·유엔軍代替

캄國際會議 15개항 宣言文채택

【유엔本部17日路=聯合】캄보디아 문제에 관한 유엔국제회의는 17일▲캄보디아 주둔 베트남軍의 철수▲유엔 平和유지군설치▲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등을 요구하는 15개항선언문을 채택했다。

캄보디아 사태의 주요관계국인 베트남과 소련을 제외하고 80여개국 대표들이 참석한가운데 유엔본부에서 열리고있는 캄보디아 문제 국제회의는 이와함께 캄보디아 사태의 평화적해결을위해 베트남을 포함한 당사국과 접촉을 벌일 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결의안을 아울러 채택했다。

이번 국제회의는 이에앞서 아세안 (동남아국가연합) 5개국이 제안한 ①모든외국군의 철수이후 캄보디아내 모든 세력의 전원 무장해제 ②캄보디아자유선거실시까지잠정정부설치등 2개조항을 놓고 중공이 이에 반대、난항을 겪었으나 16일밤 이 2개조항을 삭제키로하는 타협에성공했다。

회의는 이에따라 아세안측이 당초 요구했던 캄보디아내 모든 세력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대신『무장한 캄보디아세력들이 자유선거를 방해하지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한다』는 조항을 선언문에 포함시켰다。

蘇 전략核증강

蘇軍참모총장 밝혀

【워싱턴17日=曺淳煥특파원】소련군참모총장겸 제1부국방상 니콜라이·오가르코프원수는 對蘇군사우위를 차지하려는 미국의시도를 저지하기위해 전략핵군사력을 증강하기시작했다고 워싱턴·포스트紙가 17일 모스크바發기사로 보도했다。

오가르코프원수는『침략자를 막는 전략핵군이 군사력의 척추성요소가 된다』고 말하고 소련의 陸·海군사력을 최고수준으로 유지하는노력이 각별히 강조되고있다고 말한것으로 보도되었다。

英語교육 어떻게… ④

잦은 접촉이 지름길

학교 공부만으로는 어려워 外國人과의 직접對話 최선

한국인 가운데 영어를 불편없이 구사하는 사람은 대충 얼마나 될까。알만한 사람들에게 몇차례 물어봤지만 누구도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그런조사를 본격적으로 해본적도 없지만 도대체「불편없이」란게 어느정도의 수준을 말하는거냐고반문한다。그러나 한가지 공통적인 대답은 영어로 제할말 다하는 한국인은 상상밖으로 제한돼 있을것이라는 지적이다。우리주위에 가끔 발견되는 그런 숫자를 좀더 자세히 관찰해보자。그들이 어떻게 유창한 영어실력을 갖게 됐는지 규명해본일은 없으며 많은 사람이 그들처럼 돼야할 과제를 푸는데 핵심적인 대답이 되기 때문이다。

영어회화실력이 힘이돼 K상사의 중역으로있는 張모씨(54)는 해방과 더불어 滿洲에서 월남、仁川에서 살았다。6·25가 터지면서 그는 釜山으로 피난、거리를 방황하던중 정말 우연히 일자리를 얻게됐다。미군부대의 잡역부였다。그의 일자리는 얼마안있어 巨濟島의 中共軍포로수용소로 옮겨졌다。그의 더듬거리는 중국어실력이 미군에게 인정돼 中共軍포로와 미군을 잇는 당당한 통역관이 된것이다。당시 그의 영어는 학교에서배운 얼마간의 단어와 짧은기간이지만 미군부대 잡역부로 있으면서겪은 훈련이 전부였다。이때가 계기가 돼 그는 수복후 仁川에 돌아와서도 줄곧 미군부대에서 일했다。영외생활이 가능한 미군에게 자택의방을 세까지 줬기때문에 온종일 그들과함께 생활해온것이다。그의 영어는 그뒤 미군부대내의 사무직종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더 깨끗해지고 세련되어졌다。

張씨의 경우는 물론 유창한 영어를 갖게되는 많은 경로중 하나의 例에 불과 하다。그러나 그 많은 경로라는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의 共通點을 갖는다。「본토인 (Native Speaker)과의 잦은접촉」이 바로 그것이다。

코리아·타임스紙의 기자이면서 오랫동안 방송영어강좌를 담당해온 安英燮씨는『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영어회화에 능통한사람치고 정상적인 학교교육만으로 그렇게 된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한다。의도적이든 그렇지않든 영어회화를 배울수있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던 사람들이 전부이고 그특수한 상황이란 외국인과의 접촉이라는것이다。

미군부대의 하우스보이가 됐건、미국유학이든、미군과 교제를 했던 외교관이든、외국선교사를 좇아다녔건 어떻든 본토인과 자주만나는 과정을 거친사람들이「듣고 말하는 영어」를 배웠다는 이야기다。

그의 이같은 견해에 대해 물론 반론이 없는것은 아니다。그런 특수상황을 거치지 않고도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이다。

전 英字紙문화부장이고 지금은 번역문학가로 활약중인 安모씨 (41)는 이렇다하게 외국인과 접촉한시절이 없는 사람이다。유학 한번 갔던적도 없다。그럼에도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한다。

그러나 그의경우를 예외적이라고 말할수는 없다。지금의 영어수준에 이르기까지 그가 쏟은 정력은 본토인과 접촉해온 사람들의 그것과는 비교조차 안되는 것이다。

수백 수천권의 영문포켓북을 독파했고 퇴근만하면 AFKN TV방송과 같이살았다。수년에걸쳐 한번 보기시작하면 새벽2시께 방송이 끝날때까지 꼼짝없이 붙어있곤 했다는게 그를 잘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말하자면 그는「간접적인 접촉」을통해 그가 영어를잘한다고해서 외국인과의 접촉이 그리 필수적인것은아니잖느냐고 반문한다면 곤란한일이되는 것이다。그것은 본토인과 직접접촉을해온 사람들에 비해 그가 얼마나 먼고도된길로 迂廻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자명한일이다。

문교부가 영어교육의방향을 회화중심으로 바꾼다고하자 각계에서는 진지한 의견들이 제시되고있다。

양질의 영어선생을 확보하는일、시청각교재나 어학실습성을 개발、보급하는일들이 시급하다고 지적되기도한다。

중·고등학교용 영어교과서의 개편문제가 나오고 대입·고입고사의 출제방식에 회화비중을 높이는게 좋다는 의견도제시됐다。

이와 곁들여 일부에서는 무슨 妙策이라도 있는양 각종 아이디어를 문교당국에팔고있다。

주로 회화용 카세트를 생산판매하는 업자들이 전화를 걸어『한번 들어보라』는 요청을 해오는게 그것이다。1년이면 끝난다、6개월이면 끝내준다는 식의 아이디어가 그것이다。

그러나 영어회화에 王道는 없다。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온 바로는 외국인과의 접촉이 최선이며 최대의 어학훈련방법이다。

해외유학을 되도록 많이보내는일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것과 함께 국내학교에서는 외국인강사를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는것이 중요하다。

본토인 영어를 모국어로하는 사람이라도 더 늘려야한다。

또 그들과 접촉하는 길을 여러가지로 제도화할것도 바람직하다。학생들이 미군병사와 우정을 나누거나 회화클럽을 운영하는정도는 허용해야 될지도 모른다。그들과 접촉하면서 얻어지는 영어의 활용과 훈련、그게 바로 영어정복의 길이 되는것이다。

【金時鐘기자】

오타와 西方 경제頂上회담 加경찰 삼엄경비

외국警護員 총기휴대 금지·武裝승용차 動員

【오타와17日路=聯合】캐나다경찰은 19일부터 3일간 오타와강변의 몬트벨로城에서 개최될 서방선진7개국경제정상회담을 앞두고 수백만달러를 들여 철통같은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오타와동쪽 70km에 위치한 50년된 이 몬트벨로성주변에는 수천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서방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일곱나라수뇌들을 암살 혹은 납치에서 보호할것이다。

한 경찰대변인은『7개국정상들이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이다。왜냐하면 이들의 목적이 공식방문이 아니라 회의참석이기때문』이라고 말했다。

캐나다기마경찰은 軍·警과 함께 합동보안작전을 펴고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경비책임을 맡고있는 더글러스·맥거번 기마경찰대장은 이를『사상최대의 작전』이라고 표현했다。

기마경찰은 다른 6개국보안책임자들과 계속 보안업무를 협의하고있으나 회담장경비와 경호는 단독수행할 예정이어서 레이건美대통령의 비밀경호원들을 포함 다른나라보안요원들은 회의기간동안 총을 휴대하지못하게된다。회의대변인은『총기휴대를 금지하고있는 오랜 캐나다의 법률이 이번 회의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외국보안요원들은 무장하지 못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법률은 지난 3월에 있은 레이건 대통령 캐나다방문때에도 적용되어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비밀경호원들도 이를 알고 무기를 휴대하지 않았다고 맥거번대장은 말했다。

이번 회의의 보안을 위해 캐나다 경찰은 테러방지용인 美製무장승용차를 대당 8만6천달러에 사들였는데 이 승용차는 일기불순으로 수뇌들이 헬리콥터를 타지못하게될때 사용될 예정이며 회의가 끝난후에는 세계분쟁지역에 있는 캐나다대사들에게 배당될 계획이다。

이밖에 몬트벨로城이 인접한 오타와江밀에서 수쿠버다이버들이 수중순찰을 할예정이며 납치나 공중납치에 대비、軍·警합동『비상대책반』이만반의태세를갖추고있다。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 4 AM
토~일 : 12PM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미국 이민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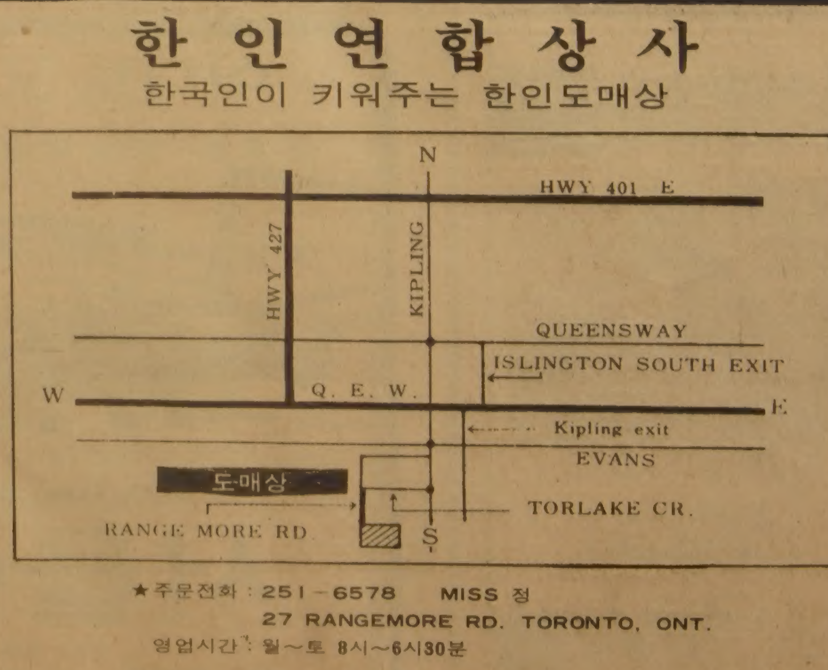
- 이민쿼터제
- 노동허가법
- 학생비자발급
- 그외의 문제등, 또한 지구 어떠한 종류등 이민수속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으신분

위와 같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시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화나 편지를 주시면 뉴욕에서 다년간 이민법에 종사하신 미국인 변호사 ROGER C. ALGASE(알게이즈 씨)께서 좀더 알기쉽고, 자세히 성의껏 답해 드립니다.
사무실엔 항상 한국인 보조원이 계시어 불편없이 도와드립니다.

연락번호 : (212) 762-5100
연락주소 : 136-31 ROOSEVELT AVE. Suite #2 FLUSHING, N. Y. 11354

한 인 연 합 상 사

한국인이 키워주는 한인도매상



★주문전화 : 251-6578 MISS 정
27 RANGEMORE RD. TORONTO, ONT.
영업시간 : 월~토 8시~6시30분
※토요일 오후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韓国庶民列伝

激動의 近代를 살다간 偉大한 한국人들

1日1食에 걸어서만 다닌 信仰의 삶

弱冠20에 五山學校교사로… 基督教심어

91세長壽누렸지만 햇수 계산해본일없고

평생 잣나무木板서 담요한장덮고 잠자

그리스도를 본받은 生涯 多夕 柳永模

남들의 위에 앉아 섬김을 받고자 한적이 없다. 오로지 남들을 섬기고자하는 삶으로 일관한 일생이다.

그러므로 자랑할만한 학력도 경력도 없다. 다만 참을 찾는 벗을 사귀고, 서러운 씨알(庶民)과 더불었다.

그의 생애 91년은 『보통사람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다』고 감히 단언하게 된다.

長壽를 누렸지만 그는 생전에 나이를 햇수로 계산하는 법이 없었다. 보통사람들의 회갑날은 60세 기념일이 되지만 그에게는 2만2천일 기념일이었던것이 그것이다. 나이를 햇수가아닌 날수로 따진것은 그만큼 하루하루를 아끼며 바로살자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는 기독청년회 모임에서 자신의 사망예정일을 선언한적이있다. 그뒤로 대학노트에 쓰기 시작한 일기에는 살아온 날수가 꼬박꼬박 기록됐었다. 예를들어 「2만5090호」식으로.

1981년2월3일에 그는 이세상을 떠났다. 그의 산날로는 3만3천1백99일 이었다.

多夕 柳永模(1890년생).

서울南大門 水閣다리 근처에서 태어난 柳永模가 한학을 익히다 기독교신앙에 눈을 뜨게된것은 그의 나이 16세때였다.

◇南岡李昇薰동상제막식에 참석했던 만년의 多夕柳永模선생。그는1일1식에 평생을 걸어서만 다니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생활을 실천한 非凡한 庶民이었다。

◇多夕이 살다간 서울 舊基洞의 집。그의 체취가 아직도 강렬한 房에는 잣나무 木床이 그대로 남아있어 「저녁을향한 기도」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李忠雨기자】

나의 이력서

<題字 玄信圭>

玄信圭 ㊳

최고의 幸運

「聖衣」公開때 伊에 도착…기쁜 觀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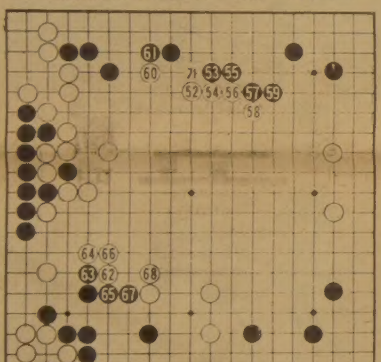
◇筆者는 78년 유럽 여행중에 스웨덴이 낳은 세계적인 식물분류학자 린네의 기념관인 린네하우스를 방문했다。

뜻밖의 不運도…루마니아 會議에 入國못해 쓴맛

第12期 名人戰 挑戰5番棋

第3局 第4譜 52~68 (각5시간 덤5집반)

白(挑戰者) 徐奉洙〈1勝1敗〉
黑(名人) 曺薰鉉〈1勝1敗〉



白、엄청난 勢力作戰

【一凡】

文化短信

統一문제 學術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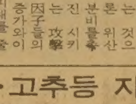
후기 陶藝家協會展

桑港소년 合唱團 22日밤 來韓공연

金利宣 첼로독주회

現代人의 健康百科

胃·十二指腸潰瘍원인



술·담배·코피·고추등 자극성 피해야

朴炅南【醫博·漢陽大醫大내과교수】

모든좋이 외의 生 <152>

趙善作作 禹慶熙畵

그림자놀이 ㊶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SHANGHAI RESTAURANT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각종 한약재 도매
보약조제및 상담
●우황청심환●우황●사향●웅담
●녹용●정주사●해구편
중국의사의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시간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偉信公司 KINGS IMPORTS
428 DUNDAS ST. W. TOR.
☎ : (416) 977-9818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명 호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한 국 관
냉면·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 문
대소 200석 완비
OPEN :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TORONTO
536-0290

블 루 어 안 경
●Zeiss(Marwite) ●Rodenstock
●Christian Dior ●Nina Ricci
●Menrad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들쭉날쭉 直行버스料金

本社취재팀 實測확인

認可거리와 走行거리 큰差異

定員초과·過速·추월도 멋대로

서울發着
江華 6km 짧아 乘客90원손해
忠州 4·2km 길이 63원 利得
春川 2백m 차이가 장근사치

◇서울新村로터리에 있는 강화운수의 영업소。서울—江華간의 실제 운행거리는 당국이 인가해준 기준구간거리보다 6,7km나짧아 요금의 시정이 불가피하다。

직행버스요금이 들쭉날쭉이다. 어떤노선은 주행거리에비해 요금이 비싸게책정돼있고 또다른노선은 어처구니 없게싸다. 대부분 서울을기점으로하는 이 직행버스의 요금은 노선간에 차이는있으나 특정노선의 경우 평균6km정도의 거짓주행거리가 더붙여져 승객1명당 90원씩 (km당15원13전)을 버스회사가 부당이득을 보는가하면 어떤노선은 기준주행거리가 실제주행거리보다 4km나짧아 60원정도를 회사가 손해보고있기도하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일보취재팀이 서울과江華, 忠州간등 3개노선의 구간거리에대해 실측, 확인함으로써 밝혀졌다. 이처럼각노선의구간별 주행거리에 차이가 생기는것은 요금인가관인 각시도가 요금인상때마다 주행거리를 실측하지않은 채 종전주행거리를 그대로믿고 요금을 올려주고 있는데서 빚어지고 있는것.

또 대부분의 직행버스들은 과속, 추월, 정원초과를 일삼아 단속의손길이 아쉽다. 한국일보는 지난6월13일 고속버스의 노선별구간거리를 실측취재, 5km의 가공주행거리분을 확인보도했고 이를뒤인 6월15일 경기도는 서울을 기점으로하는 모든고속버스의노선별 요금을 평균50원씩을인하했었다.

17일 하오1시50분 서울新村시외버스터미널을 떠나기 직전 강화운수소속 경기5아5700 직행버스의 미터기는 3만2천86·7km였는데 江華터미널에 도착했을때는 3만2천1백38·0km를 가리켜 실제주행거리는 51·3km로 나타났다. 또 이날하오6시18분 江華를 떠나기직전 경기5아5 19호 직행버스의 거리기는 6만7천4백82·5km였으나 新村터미널에 도착직후에는 6만7천4백34·0km로 나타나 실주행거리는 51·5km로 밝혀졌다. 이를 경기도가 인가해준 기준주행거리 58km와 비교하면 평균6km이상을 직행버스가 단축운행하고 있는셈이어서 이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1인당 90원씩의 부당요금을 물고있는셈이된다.

17일 상오11시 서울동마장시외버스터미널을 떠나기직전 경기여객소속 경기5아2 199호 직행고속버스의 미터기는 8만9천9백72·7km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영동고속도로를 나고 利川터미널을 거쳐 상업도로로 忠州버스공용주차장에 도착하자 거리기는9만1백13·8km로 나타나 실제주행거리는 1백41·1km로 드러났다.

이것은 충북도가 인가해준 승차권상의 구간거리1백42·7km보다 1·6km가 단축된것으로 이를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 km당 평균 요금 13원96전으로 계산하면 승객들은 22원34전을 더 붙고있는것.

그러나 忠州를떠나 상업도로를거쳐 서울로오는 소위직통버스의 실제 구간거리는 보다 훨씬짧아 승객들이 요금만에서 득을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忠州를떠나기전 남일여객소속 경기5아5160호 직통버스의 거리기는 16만5천8백38·2km를 가리키고 있었으나 서울동마장 터미널에도착후 거리기는 16만5천9백72·2km로 나타나 실제주행거리는 1백34·0km로 밝혀졌는데 이는 충북도가 인가해준 기준운행거리 1백29·8km보다 오히려 4·2km나 길어 승객들은 약63원씩의 이득을 보고있었다.

인가거리와 주행거리가 가장 근사치를보이고있는 노선은 서울—春川간으로 본사의왕복실측결과 87·4、87·3km로나타나 요금책정의 기준거리87·6km와 2백~3백m밖에차이가 안나 합리적인 노선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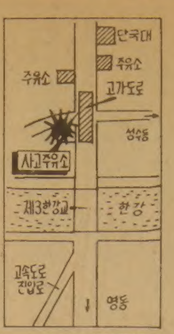
직행버스 노선의 실제운행거리가 당국의 기준거리와차이가 나는점에대해 교통부당국은 18일 『일일이 실측해보지 않아 정확히 알수가없다』고 말하고 『각시도에 노선거리에대한 실측지시를 했기때문에 오는 10월말까지는 전국의 각버스노선의 기준거리가 새로 산출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행버스들은 전노선별로 무리한운행시간과 수입증대를위해 제한속도인 全國가도70km, 일반국도60km를 무시하고 거의 80~90km로 과속으로 달리기를일삼고 있고 졸음2차선에서 마구 앞차를 추월하는 난폭운전을 감행하고있었다. 또 서울—春川간을 운행하는 직행버스는 물론승객의 희망에따라 승차시켰으나 정원외에도 5명의승객을 입석으로 태워가는 불법운행도 서슴지 않았다.

深夜 都心주유소爆發

所長등 3명死亡 7명重輕傷

地下室 流出가스、換風機스파크로 引火



17일 밤10시5분께 서울江南區漢南洞227 漢南로터리 대로변에있는 上南석유제3한강주유소(대표檀四英·51) 지하기계실에 차있던 유출가스가 환풍기모터의 스파크로 인화, 불이나면서 지하실이 폭발, 소장崔三旭씨(46)와 경리사원 李恩子양(19)、급유원 金勝洙군(18)등 3명이 숨지고 급유원元永喆군(17)등 7명이 중화상을입었다. 또 폭발순간 1층 사무실이 무너져주저앉았고 불길은 20평크기의 주유소1층 사무실을 태우고 20분만에 진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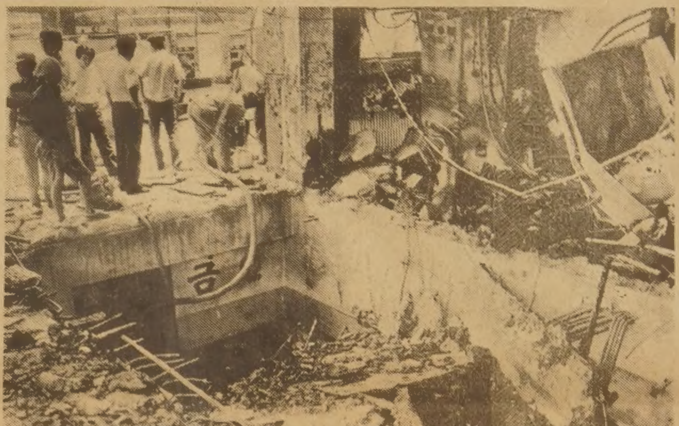
경리원 金煥泰씨(28)에 의하면 「광」하는 폭음과 함께 사무실 바닥이 공중에 떴다가 지하로 떨어졌고 자신의 몸이 7m밖으로 팅겨나갔다는 것.

이사고로 사무실벽이 흔적도 없이 날아갔고알루미늄새시와 철근등이 엿가락처럼휘었으며 2、3층 유리창이박살났고 3층건물 곳곳에 금이갔다. 또 폭발당시의 폭풍으로 주유소 바로뒤 漢南우체국 뒷벽과 漢南갈비집 벽도 5m가량 무너졌다.

주유소 급유반장 黃善慶씨(21)에 의하면 이날 주간계기검사와 1일 계기검사를 하기위해 본사직원 趙炳漢씨(25)와 경리사원 李양등 3명이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1호계기에서 「쉬익」하는소리와함께 휘발유 냄새가 심하게나 주유소장 崔씨에게 알리려고 사무실로 올라가는순간 사고가 났다는것.

한편경찰은 18일 화재감식반을동원, 지하실환풍기 모터에 방폭장치가 안돼있는 사실을밝혀내고 스위치를 켜는순간 모터에서생긴 스파크가 지하실에 차있던 가스에 인화됐을것으로 보고있다.

이 주유소지하실에는 1만2천ℓ짜리 휘발유 저장탱크와 경유、등유등 4개의탱크가 저장돼있었으나 폭발하지않아 큰참사는 면했다.



◇20㎝두께 사무실바닥 폭삭 3명이 숨지고 7명이 중화상을입은 주유소 폭발사고 현장。폭발순간 두께20㎝의 사무실바닥이 내려앉았으며 알루미늄새시와 철근등이 엿가락처럼 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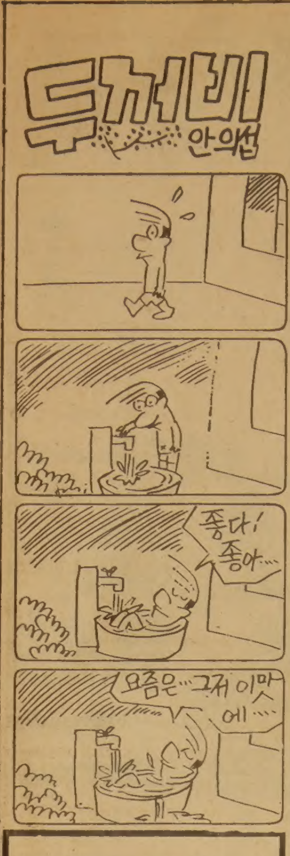
붙볕더위속食水難

光州고지대 물받느라 밤잠설쳐

【光州=聯】光州시내 일부고지대지역에 지난6월초순부터 지금까지 수도물이 제대로 나오지않아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고있다.

특히 재학생1천여명의 서광여중(白雲洞소재)과3천여명의 산수국교는 밤10시이후부터 2시간동안만 물이나와 당직교사들이 물을 받느라 밤잠을 설치고있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시에서 공급하는 급수차에 의존하고 있으나 충분한 양이 못돼 지하수를 이용하고있으며 서광여중과 산수국교학생들은 등교길에 자신들이 마실물을 물통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실정이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乘用車동원 全國돌며 8백마리 개竊盜

5명令狀 1명手配

【大邱=聯】大邱東部경찰서는 18일 오토바이와 자가용을 동원, 전국을무대로 개를 훔쳐온 개전문절도단 주범申淳浩씨(32·전과11범·大邱市東區檢沙洞764)와 공범李泰教씨(32·檢沙洞756)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중개상 張文圭씨(31)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개를 훔치는데 사용한 慶北나3765호 포니、慶北나3315호 레코드로얄등 승용차2대와 慶北나2724호 1백25cc 오토바이1대、철제절단기1개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16일 상오5시30분께 大邱市東區律河洞248 鄭在寶씨(27)집에 침입、鄭씨집 개(싯가 10만원상당)를 훔쳐내 중개상인 張씨에게 달

40代여인 피살 토막屍로 發見

【長興=聯】허리와 두부를 등 3군데가 잘린 40대여인의 토막시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하오7시께 전남靈岩郡三湖面龍塘里앞 서쪽 40m 해변에서 허리와 양다리등 3군데가 잘린 40대여인의 토막시체를 주민 宋모씨(24)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자율적 勞組活動존중〟

勞·使·政간담회 부당勞動行僞 근절決議

한국노총(위원장 鄭漢株)은 노동관계법개정이후 일부기업에서 부당노동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키위해 18일 상오7시30분 서울가든 호텔에서 노·사·정간담회를열고 부당노동행위 근절에대한 4개항의 합의무를 채택했다.

이합의문은 ▲사용자는 정한 노사협조체제 확립을위해 적극노력하고 ▲근로자의 자율적 노조경영과 노조활동을 존중하며 ▲근로자는 노조를통해 제반 요구사항을 원약, 합리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적극 노력하며 ▲노사는 생산성향상운동으로 당면경제난을 극복할것을위해 적극 협력할것을 다짐했다.

校內示威주동협의 서울大生1명구속

서울龍山경찰서는 18일 서울大교내시위를 주동한 신형식군(21·사회학과3년)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군은 지난5월25일 사회대8개학과 파과대표회의에서 침묵시위와 교내에서 학생시위를 주동한 혐의이다.

組合員 노임횡령 勞組간부 셋拘束

서울지검수사과는 18일 5천5백여만원의 노조원노임을 가로챈 전국항만운수노동조합연맹龍山농수산물하치장 노조위원장 李共新씨(41)와 총무 李啟昌씨(36)등 3명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노조 수금원 崔明浩씨(40)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위원장 李씨등은 지난1월31일 서울龍山區漢江路3街15의3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원 1백55명에게 줄 하역노임 66만9천원가운데 17만1천원을 떼내 나눠쓴것을 비롯, 78년8월1일부터 지난 2월18일까지 모두 5천5백68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들은 노조원들의 노임청과물위탁상들로부터 일괄수금, 분배하는 일을 맡아오면서 하루 8만원에서 15만원씩을 가로채왔다.

아세안經協 立體通商전환

5개經濟部處 합동대책마련

아세안국가에 대한 경제협력을 지금까지의 단순통상에서 立體통상으로 전환시키기위해 5개경제부처가 합동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大韓商議가 18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마련한 「對아세안經協증진방안에 관한 간담회」에 참석한 金滿吉상공차관과 李圭聲전설차관은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히면서 아세안의 자원을 수입하고 경공업제품을 수출해온 종래의 對아세안통상을 合作투자에 따른 정부 자재수출및 기술과 마케팅관리능력을 傳授하는 立體통상세제로 바꿔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해외투자 진흥법을마련,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힘껏도울방침이며 특히 투자危險이 큰 開發輸入에 대해서는 損實인정범위를 넓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수출의경우 아세안은 中東에 이은 제2의물파구가 될것으로 믿어지기때문에 외환및 조세금융에서의 제도적 뒷받침을통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것이라고 말했다.

全澤珤박사 1周忌 어제 全經聯회관서

故霽峰 全澤珤선생 1주기 추모식이 18일 상오10시 全經聯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2백여명의 정치경제및 종교계인사들이 참석 故人의 생전의 업적을 기렸다.

YMCA 全澤鳧명예총무는 故人의 유지를 받들어 霽峰文化財團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했다고 밝히고 이재단은 우리경제발전에 공헌한 경제인들을 지원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세네갈 韓圭昌공보관 교통사고로 殉職

駐세네갈大使館에 근무중이던 韓圭昌공보관(43·사진)이 18일 상오8시(현지시간17일하오6시)께 교통사고로 殉職했다.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公害피해 農民에 補償金 2억 支給

麗川工團 24개부락

【麗水=聯】전남 麗川공단 주변의 공해피해농민들이 오는 30일까지 공해배출업체로부터 피해보상금 2억3천여만원을 지급받게될것으로 보인다.

18일 전남도 麗川지구출장소에 따르면 지난해동안 南海화학등10대麗川공단입주업체들이 내뿜은 유독가스공해로 麗川郡三日邑洛浦里등 24개부락 3천5백93가구가 경작하는 총1천7백70ha의 농경지와 과수원이 피해(2억3천1백89만원상당)를 입었다는것.

이에따라 출장소측은 10개공장에 피해보상금을 이달말까지 모두 지급토록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麗川지구출장소의 의뢰로 한국화학연구소(소장 李太鉉)가 작공 조사결과를 토대로 배정한 공장별 피해보상액은 다음과 같다。(단위·만원)

▲南海화학=7、744 ▲한전여수화력=5、298 ▲한전호남화력=3、740 ▲호남에틸렌=2、931 ▲호남정유=2、024 ▲호남석유=408 ▲럭키여천공장=386 ▲금호화학=212 ▲한국다우케미칼=1、140 ▲럭키카본=124

勞賃1억대 체불한 三星製糸대표 拘束

【忠州=聯】노동부忠州지방사무소는 18일 노임과 퇴직금을 6개월동안이나 지불하지않은 충북忠州市城西洞9 11의1 三星製糸대표이사 河英煥씨(44)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行人때린후 河川에버려 致死

택시운전사 〝길막는다〟고

표주박

○…경남鎭海경찰서는 18일 택시의 진로를 막는다고 행패를 부린뒤 하천에 빠뜨려 숨지게한 택시운전사 李吉守씨(24)를 폭행치사혐의로 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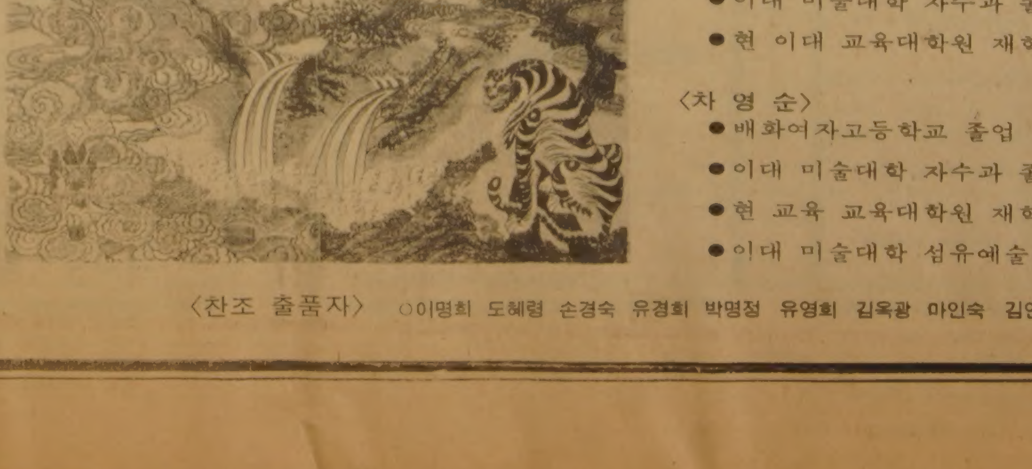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12일 밤11시께 진일교통소속 경남1바4073호 택시를몰고 慶和洞에서 시내쪽으로 들어오다 머리에운동복을 덮은 행인 鄭英哲씨(24)가 도로중앙선을 따라걸어가는 것을 보고 길을 비키라고 소리쳤다 시비가붙자 鄭씨를 때린뒤 도로옆 1·7m의 하천에 밀어넣고 달아나 鄭씨를 숨지게 했다는것. 【鎭海=聯】

샘터의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 환영
디자이너 MR. 김
606 BLOOR ST. W.
☎ : 535-4441

초대합니다

푸른 낭만의 계절,
멀리 고국 여대생들의 특수미술작품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오니 부디오시어 감상하시고
각 가정에 한폭씩 걸어 주시기를……

주 최 : 토론토대학교 한국학과 후원재단
후 원 : 재카나다 이대동창회
OPENING리셉숀 : 8월5일 오후4시~8시
전시일지 : 8월5일(수)~9일(일)
수, 목, 금 : 오후12~9시
토, 일 : 오후2~8시
장 소 : 토론토대학교 인터내쇼날 학생회관
33 ST. GEORGE



작가소개 :

〈김 수 혜〉
● 이대부속고등학교 졸업
● 이대 미술대학 장식미술과 졸업
● 극동방송국 아나운서 겸 P.D.

〈김 현 숙〉
● 인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대 미술대학 자수과 졸업
● 현 이대 교육대학원 재학

〈차 영 순〉
● 배화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대 미술대학 자수과 졸업
● 현 교육 교육대학원 재학 이대
● 이대 미술대학 섬유예술과 조교

〈찬조 출품자〉 ○이명희 도혜령 손경숙 유경희 박명정 유영희 김옥광 마인숙 김인숙 김수혜

宗敎

소 식

佛國寺 金月樓스님등 4個本寺주지를 任命

불교 曹溪宗총무원은 15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佛國寺등 4개 본사 주지를 임명했다。새로 발령된 주지는 佛國寺에 金月樓·月精寺에 金能慧·桐華寺에 許慧淨·雙磎寺에 方法融스님등이다。

如如會 불교교양강좌

한국불교 노장층의 모임인 如如會(회장 李鍾益)는 오는27일부터 8월1일까지 6일간 서울鍾路區司諫洞 法輪寺에서 불교교양대학을 개최한다。강사는 大德스님, 趙明基교수, 金魚水씨, 洪庭植교수등。

釜山서 敎會史發表會

한국교회사연구소 제19회 간담회가 오는 28일하오6시 釜山五倫臺 한국순교복자수녀원에서 열린다。이날의 발제 강연자는 金玉姬수녀(釜山女大 교수)로 연제는「부산동래의 순교자」。교회사연구소는 마이크로버스 1대를 마련, 27일상오8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출발키로 했다。

佛敎구도회 교리강좌

한국불교연구원구도회는 제8회 중·고등학생을 위한 불교기초교리강좌를 20~23일 東國大 정각원 법당에서 갖는다。

강사는 李箕永교수, 시간은 매일하오 5시30분부터 8시까지。

高大同門 신학강좌

高麗大교육대학원 기독동문회는 오는25일 하오2시 서울종로2가 고우회관에서 제1회 에마신학강좌를 갖는다。강사는 아시아연합신학원 孫鳳浩박사。연락처 ☎28732 ☏42104。

青年僧伽六和대회

曹溪宗 중앙승가대학이 주최하는 제1차 전국청년승가六和대회가 지난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安岩洞 開運寺내 승가대학 본부에서 열렸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강원에서 1백여명의비구및 비구니스님이 참석했다。

오늘 觀音像移運法會

羅城불교문화회관 관음상 奉安移運을 위한 대법회가 19일상오11시 曹溪寺 대웅전에서 봉행된다。이날 법회에서는 불교문화회관건립 한국추진위원장인無盡藏스님의 인사, 曹溪宗 총무원장 鄭韋宇스님의 격려사, 正覺會長인 宋志英의원의 축사, 七寶寺주지 姜昔珠스님의 법어가 있을 예정이다。

어린이 聖歌大合唱

한국기독교 교육진흥원은 21일하오 세종문화회관에서 제3회 어린이 성가대합창제를 개최한다。이날 성가합창제에는 국내 11개교회외에 재미한인 기독교 어린이 합창단의 메아리노래모임이 특별출연한다。

異色토론모임「未來의 科學과 宗敎」

文明속의 人間喪失 어떻게 막을까

科學의 발달에따라 價値觀 붕괴현상
도덕적 主體로의 人間개조가 急先務
"物質개벽되니 精神도 개벽돼야"

「혹성시대」를 사는 인간의 정신적인 모습을 그려보고 과학자들의 새 다른종교토론이 18일하오 신문회관에서 벌어져 관심을 모았다。圓光大원불교사상연구원(원장 朴吉眞)이 마련한 이학술모임에서는 鄭奉吉교수(美플로리다州立大) 高允錫교수(서울大자연대학장) 吳熙弼교수(忠南大)등 철학·과학자들과 金容九씨(언론인)가 주제발표를, 고영길교수(慶州工大)등 30여명의 교수들이 토론을 벌였다。이날의 주제는「과학문명과원불교」였으나, 과학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왜소해지고 상실되어가는 人間의 문제를 과학자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했다는점에서 뜻이 있는 모임이 되었다고 할수있었다。

흔한 이야기이지만 오늘의 인류가 神話를 잃고 정신적인 支柱마저 찾지 못하고있음은 분명한 일이다。과학문명은 눈부시게 진보하고있으나 그것을 수용할만한 정신적인 주체는 서있지 않으며, 따라서 현대인에게는 가치관의 붕괴와 정신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문명이 발달한다해도생명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절대가치는 결코 손상될수없다。바로 이 점이 미래의 과학과 인간을 생각하는 기본입장이 되어야한다。

주제발표에나선 鄭奉吉교수는 물질문명자체는 해로운것이아니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따라 인류를 苦海로 밀어넣을수도있고 樂園을 건설할수도 있는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을 도덕적주체로 개조하는 일이 긴요하다고 역설했다。

鄭교수는 人倫道德을 향상시키기위해서는「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報恩의 道가 실천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이에따른 三學工夫(修養·研究·取捨)、또한 三學工夫를통한 三大力(解脫·大覺·中正)을 얻을때 물질문명의 善用과 지상낙원건설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鄭奉吉교수

◇高允錫교수

◇吳熙弼교수

高允錫교수는 물리학의 발달과정에서 그 自然觀이 변천된 역사를 살피고 현대물리학의 自然觀이 원불교사상에 접근하고있는 몇가지 예를 들었다。

高교수는 고전물리학에서는 주체인 觀測者와 객체인 時空間이나 自然現象을 독립적으로 보았으나 현대물리학에서는 상대성원리에 의해 종합적으로 취급하게되었다고 설명하고 원불교의 主客一體, 天地와 나와의 合一性, 不生不滅의 현대물리학의 에너지物質의 保存則은 서로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量子力學의 相補性原理는 완전히 상반되는두가지 개념(粒子性과 波動性)을 서로 보완함으로써만 전체적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바, 이것은 有無相通·動靜一如·靈肉雙全사상등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미래과학 측면에서 강연한 吳熙弼교수는 현재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자원인 화석연료가 서기 2천년대에 들어서 고갈될 것이나 새로운 에너지원인 核融合爐를 완성、21세기에는 과학만능시대가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吳교수는 또 미래의 발전템포는 더욱 빠를것이예상되고 불과 19년앞으로다가선 21세기의 미래상을내다볼때 인류는 그찬란할물질문명에 도취되게 마련이지만, 과학기술의 일방적이고 불균형적인 고도성장으로 인류의위기는 더욱심화되고있음을 인식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68년 로마클럽이 천연자원의 고갈, 공해에의한 환경오염, 발전도상국의 인구증가, 그리고 핵병기의 확산등 인류의 파국을경고했던일, 그보다앞선 46년 아널드·토인비가 물질문명의 극대화로인한 인류파멸의 비극적종말을 예언했던 일을상기시킨 吳교수는「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개벽하자」는 표어아래 새會上의 종교를 開敎한 少太山의 이념에 시대적인 당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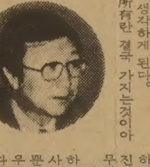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의「東西사상의 만남」을 주제로 발표한 金容九씨는「東西의 만남」의 地平에서 어떻게 창조적문화를 일으킬것인가가 우리의 과제라고 제시했다。金씨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의「만남」의 과정을 돌이켜 술회한뒤、20세기아침에 탄생한「새宗敎」인 원불교가 東西사상의 만남에서도 새로운가능성을개척해야할것이라고 제의했다。【李忠雨기자】

나의 告白

우리 生命까지도「내所有」아닌것

쌓아 두지말고 善하게쓰는 슬기를

李三悅<延世醫大교수>



나는 6·25때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저들의 감옥에 갇히면서 이 세상의 모든것이 아무소용 없음을 깨달았다。

단 한가지 감방속에서도할 수있는일、그것은 기도였다。그 기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맹서하였다。살려만 준다면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그런데 그후의 삶이 그렇지 못하여 늘 두려운 마음뿐이다。

얼마전 미국사시는 삼촌이 다니러 서울에 오셨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다。空手來空手去라지만 여행가방하나도 못들고 떠나는 길이었다。가진 사람、못가진 사람、내 주위에서도 하나 둘씩 떠나 버린다。그렇게도 애지중지 하던 가족、지위、명예、그리고 물질、그 모든것을 그대로 두고 떠나 버린다。나그네 인생이라지만 한번 떠나버리면 그만인것을 도대체 내것、내 소유라는것이 무엇인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所有란 결국 가지는것이아니고 쓰는것이 아닐까。그런 생각이 든다。백만금을 쌓아 둔들 그게 무슨 소용이랴。결국 쓰는 부분만큼이 자기 것이 아니랴。쓰되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다。선하게 쓰면 덕스러운것이요 자기만을위하여 쓰면 추악하게된다。이것이 어찌 물질만의 일이랴。지위도 권세도 지식도 재간도 우리의 시간도 사고까지도 나만을 위하여 쓴다면 살벌한 세상이 될것이다。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기회를 주셨다。성경은 이것을 탤런트의 비유로 표현한다。주어진 탤런트를 최대한으로 활용한 종이 결국 주인의 칭찬을 받는다。가지기만 하였지 쓸줄모르는 종은 가진것까지도 빼앗기고 만다。무서운 교훈이다。

따지고보면 우리의 所有란 하나도 내것이 없다。이세상 사는 동안 그관리를 맡은것뿐이다。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것이 아니다。주인은 따로있는듯 하다。이것을 내것으로 착각하는데 인생의비극이있다。어차피 내것이아닌것、관리만맡은것、그것이 所有라는것、그렇다면 대답은 분명하다。주인의 뜻대로써야지。그리고 선하게 관리해야지 우리의 본분은 그것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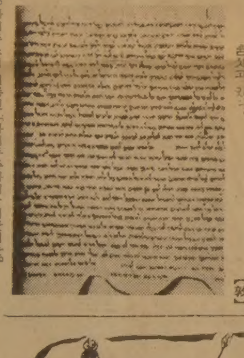
한번은 죽었던 내목숨、덤으로 사는 인생이긴만 그것이 자꾸만 내所有로 느껴져서 고민이다。

어린이운동 선구자 小波 50周忌
23일、天道敎강당서 追慕會

◇小波 方定煥

오는 23일은 우리나라 어린이운동의 선구자 소파 方定煥선생이 돌아가신지 50주기가 되는날。이날을맞아 어린이 관계단체들이「소파선생 50주기 추모행사준비위원회」를 만들고 23일하오4시 천도교 강당에서 소파 방정환선생 50주기 추모모임을 갖는다。이날 추모회에서는 어린이헌장이 낭독된후 鄭寅燮색동회장의 인사、朴洪根씨(한국아동문학가협회부회장)의 경과보고、李在徹씨(한국현대아동문학가협회부회장)의 소파약력、尹石重색동회중앙위원의 회고담、嚴基元씨(한국아동문학회부회장)의 추도시 낭독등으로 이어진후 망우리에 있는 소파묘소를 참배하게 된다。

古代성경「死海두루마리」연구
前世믿고 豫定說부인…기존聖經 헛점 보완


◇파피루스에 기록된「사해두루마리」의 글씨들。

BC2백년경 死海부근에 살던 이스라엘인들이 사용했다는 고대성경「사해두루마리」에관한 한국내신학자의 연구논문이 나와 신학계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서울신학연구원 金大峰교수가 발표한「20세기의 최대발견, 사해두루마리에관한 소고」는 이두루마리의 성립과정을 설명한다음 기존의성경들이 갖고있는 구성상의 헛점을 보완하는데 이두루마리가 크게 도움이될것으로 분석하고있다。

「사해두루마리」는 이스라엘민족중 엣세네파가 신앙한 경전으로 파피루스、양피지、동판등에 기록된것인데 1947~56년사이에 발굴되었다。이파피루스와 양피지들은 방부제를 칠한 헝겊에 싸서 항아리에 보관했고 특히 동판기록은 유사시에 땅속에 묻어 보관했다。

이중 지금까지 발굴된것은 단편적으로 약6백편인데 여기에는 구약39권중 에스더서를 제외한 38권이 포함돼있고 지금까지 알려지지않은「창세기외경」「여호수아시편」「신전에관한 기록」「노아서」「에녹서」등 새로운 성경들이많다。

이 새 성경들은 내용도 현재의 기독교 교리와는 다른것이 많은데 그중 특히 주목되는것은「前世」를 믿고「예정설」을 부인한 점이다。

인간이 지상에 태어나는것은 우연한일이 아니며 전세에서의 행위에 영향을 받을수있다는 이 교리는 얼핏 불교의「윤회」를 연상케한다。

「사해두루마리」를 신봉했던 쿰란지역 사람들은 또 사탄도 하느님의 피조물로, 전세에서는 인간이었으나 하느님에게 반기를든 사악한 영으로、하느님의 면전에서 추방됐다고 믿고있다。

金교수는『「사해두루마리」의 가르침중 상당부분이 오늘날 이단시되고 있지만 이를 신봉한 엣세네파는 이스라엘 인들중 가장 의롭고 경건한 종파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敎】

보리밥상에 愛國의 길이

日曜日 아침을위한 말씀

文容梧 (西橋洞교회牧師·농촌개발협회會長)

잊어서는 안될 맥추절의 敎訓
땀으로 가꾼 곡식 외면해서야

나라에서는 국가적인 기념일을 정하여 그날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있다。사회와 개인의 생애에서도 그렇거니와 교회도 역시 특별한 날들이 있어서 그 뜻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유태인들의 절기 가운데 가장크게 지킨것은 유월절·맥추절·초막절이다。이 삼대절기는 목축과 농사에 깊은 관계를 갖고있는 절기들이다。요즈음은 시기적으로 볼때 맥추절기에 해당한다。특별히 이농민이 격증하여 국가정책에까지 심각한 때에 밀과 보리의 추수로써 지키는 맥추절은 뜻깊은 절기라 하지 않을수없다。

맥추절에는 중요한 두가지 의의가 들어 있다。먼저는 역사적인 의의요 다음은 농경적인 의의이다。그 유래는 히브리 민족이 출애급하여 시나이 광야에서 40년간 전혀 농사를 짓지 못하던때 부터다。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묵은 곡식을 먹으며 천막생활을 하였다。그러다가 온갖 시련과 각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밀보리농사를 지었다。그때의 기쁨을 생각해 보자。가히 짐작할 만하다。그래서 맥추절을 즐겁게 지키라고했다。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도 맥추절을 지키는 의의가 무엇인가?

먼저는 이전의 고생을 기억해서 비록 오늘에 잘살지만 사치와 낭비를 삼가라는데 있다。우리들도 십수년 전에는 그와같은 고생을 하였다。가을추수이후에 밀보리추수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는가。그래서 보리고개는 우리국민이 넘기 어려운 한스러운 고개였다。얼마전까지도 쌀과 보리는 우리국민의 식량의전부였었다。그런데 국민소득이 약간 높아져서 수입쌀 가져온다고 보리는 외면하고 쌀만 찾아서야 되겠는가。보리는 수익성이 적어서 특수작물을 경작하고, 농민들도 현금으로 양식을 사되 보리보다는 쌀을 사는 실정이다。사실 뜨거운 여름철에는 보리밥을 열무김치와 고추장에 비벼먹는 맛이나 찬물에 뚝 떠서 풋 고추에 먹는맛이 쌀밥보다 훨씬 낫다。오히려 농약에 의한 수은오염도 없기때문에 건강에도 유익한것이다。

어찌 이것만 생각하랴。해마다 식량사정이 어려워 애써 획득한 외화로 백여만톤 입입쌀 수입한다는것은 우리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알면서도 남는 보리는외면하고 쌀만 찾고있다。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맥추절을 기억하고이전에 고생하던 그때를 기념하여 사치와 낭비를 지양해야 되겠다。

맥추절을 지키는 두번째의 의의는 농업의 귀중함을 재인식하자는것이다。성경에 농사의 비유를 많이 했거니와 우리말에도 농자는 천하의대본이라고 했다。부손은 모든기술에서 제일이며 가장 존경받는것이농업이라했으며 새뮤얼존슨은「농업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산업」이라했다。피트가 지은 추수의 노래에는『바보에게 황금을 주고 악당에게 권력을 주라。운명의 물거품은 일어났다가 꺼지도록 버려두라。흙판에서 씨뿌리며 꽃을 가꾸며 나무를 심는자가 어느누구보다도 좋구나』하였다。

농업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농업은 농민만의 할일이 아니라 도시인을 살리는 밥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古詩의 한 귀절이 기억난다。한 선비가 밥상을 받고 하는 말이「수지반중손고 입입개신고」라 하였다。「누가소반위에 놓인 밥을 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농부의 수고를 생각 할것인가」란 뜻이다。밥을 먹고 사는 모든 사람은 낟알 하나 하나에 농부의 수고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찬으로 존경해야 한다。

한가지 물건을 생산하기위해서 자본·경영·노동이 필요하듯이 농업도 자기 땅에다 농한기에 계획을 세워서 계절따라 열심히 일해서 생산하는것이다。농업은 자본·경영·노동을 혼자서 다한다。작은 중소기업도 복지제도와 노동법을 잘 준수해서 퇴직금·보너스·의료보험·은퇴·사그브상제도가 있다。그러나 아직 농민에게는 황보되지 못하고있다。여기에다져 자영농을 벗어나기 힘들다면 생산의욕이 있겠는가。과거 우리가 산업근대화에 총력을 집중하다보니 농촌을 정책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도 인정해야 한다。새시대는 과감한 투자정책과 그들의 생산의욕을 위해서 한번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농업은 하나님이 맡기신 천직이다。아담이 땀흘려 수고하여 종신토록 땅의 소산을 먹으며 산것은 형벌이 아니라 그에게 부과된 사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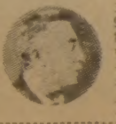
도시인은 농민이 잘 살아야 우리도 잘살게 된다는 연대의식을 새롭게 해야한다。우리의 조상들이 먹고 살아온 보리를 우리도 많이 먹음으로써 나라는 농지 구석구석에서까지 주곡(밀·보리·쌀)을 생산하여 수입쌀없이 식량 자급·자족이 된다고하면 이보다 훌륭한 애국이 어디 있겠는가。

히브리민족이 가졌던 맥추절의 정신을 우리국민이 가질뿐만아니라 도시교회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농촌을 사랑하고 농민을존경하며 희생적의 봉사를 그들에게 돌릴때이다。

1966년 9월22일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전국 농산물 경진대회에서 한 말이 있다。『농민은 구매할때 모두 소매로 구매하고 판매하는것은 전부 도매로 팔며 사고 파는데 운반비는 다 농민이 지불하는 유일한사람』이라고。이제 이나라와 모든도시는 농촌과 함께 서로 주고받으며 어울려 살아야한다。

文豪의 名言

래프카디오·헌 <1850~1904>



그리스 태생의 小說家, 文藝批評家, 英文學者。1895년 日本에 歸化, 小泉八雲(고이즈미·야쿠모)라 했다。일본의 風土, 文化를 사랑과 이해의 눈으로 관찰한 예술적 향취높은 소설, 수필, 평론 紀行文등을씀。

위대한 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척도는 단지 한번만 읽고 싶은가 여러번 읽고 싶은가에 달려있다。참으로 위대한 책이라면 어떤것이라도 처음 읽고싶어졌을때보다는 두번째 때 더 읽고 싶어지는 법이다。또한 읽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우리들은 새로운 意義와 美를 발견하게 된다。

× × ×

래프카디오·헌(Lafcadio Hearn)은 영국군인인 아버지와 그리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그리스서 났다。3세때 부친의 고국 아일랜드로 와 6세때 부모가 이혼한 후론 부친의 숙모집에서 자랐다。20세때 渡美, 곤경속에 자작활방

偉大한 冊의 尺度는 읽고싶은 回數에 달려있다

황, 24세부터는 신문기자로지냈다。31세후10년간뉴 올리안즈의 타임즈 데모크래트의 문화담당 편집장으로 유럽문학의 새물결을 번역, 평론등으로 소개했으며 창작에서도「中國怪談集」등 獨自的분야를 열어 文名을 높였다。

1890년 통신원으로 처음으로 일본에오게됐다。그는 일본문화의외로 복잡하고 근저가 깊은데 놀라, 여기살면서 착실히 일본연구를 하기로하고 松江(마쓰에)中學의 영어교사가됐다。그후「마쓰에」의 인정、풍광이 모두 그의 마음을 끌어 이곳여인 小泉節子(고이즈미·세쓰꼬)와 결혼, 이듬해 熊本(구마모토)의 五高에 전임,'96년 東大초빙으로 英文學을 강의, 1903년까지 약 7년간 학생들에게 많은영향을줬다。(한때 早稻田(와세다) 대학강사도지냄) 사후 그때 講義集이 많이출판됐는데 그는 英文學에있어서의 뛰어난 문학자였고 그의 명성을 부동의것으로 한것은 일본에서 취재한 여러작품이었다。인용은 東大서의 강의록의하나인「人生과 文學」중의 것으로 讀書論으로 잘 알려진 것이다。

「헌」은 다른 論文「讀書論」에서도 다음과같이 썼다。

「젊은 사람은 아무도 한번 읽은것만으로, 거의 위대한 서적의 특질을 認識할수가없다。그같은 책속의 모든것을 간파하기위해 人類는 대개의 경우 수백년을필요로했다는것을 기억해야한다。그러나 사람은 인생의 경험에의해 긍국에 새로운뜻을 발견하게 된다。(中略) 위대한책은 독자의정신발달에 정적으로 비례, 성장해가는 것이다」

流星의 賦 <135>

亡兆의 日月 ㉑

-李炳注作- 李友範畵

그러나 향도(香徒)들 가운데서 사수(射手)를 뽑아내는 일은 적잖게 물의를 일으켰다。병조(兵曹)및 오부(五部)의 관속、유사(有事)들이 이 기회를 타서 이(利)를 보려는 폐단이 생겨났다。면포(綿布)오·육필(五·六匹)을 바치면 징발을 면하게 해주는 관례가 생기고 유력한 사람의 알선으로 역시 징발을 면하게 되니 자연 협잡과 농간이 성행하게 된 것이다。

이이를 모함하려고 벼르고 있던 동인들이 가만 있을까닭이 없었다。항간의 그런 사정을 들어 침소봉대(針小棒大)하게 떠들어 제꼈다。이이는 이 일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제출했다。그러나

『경의 심사는 벌써부터 내가 알고 있는 터이요。사람의 지껄임을 개의할것 없소。이 어려운 시기에 나와같이 일을 합시다』

하는 임금의 말이 있었다。

그런데 이 무렵 임금이 국경지대의 군사(軍事)를 의논하려고 병조의 당상관들을 소집한 일이 있었다。이이는 내병조(內兵曹)에 까진 갔으나、갑자기 현기증이 심해 입궐하지 못하고 돌아와 다시 사표를 냈다。

『이이가 소명(召命)을 받고 대궐에 들어가서 내병조에만 들르고、지척에 있는 정원(政院)에 가서 임금의 전교를 받지 않았으니 이는 임금을 업신여기는 거만한 행동이다』

하여 파직할 것을 상소했다。그러나 임금은

『요요 천년간에 군신이 서로 만났으되 공로를 이루지 못했는데 겨우 경의 공로가 있었을 뿐이다。그리니 누가 뭐라고 하건 개의치 말고 출사하라』

는 분부를 이이에게 내렸다。

『병권(兵權)을 마음대로 하고 임금을 업신여긴다니 이것은 실로 신하로선 극죄(極罪)입니다。임금을 업신여긴다는 죄를 묻는데도 신이 동념(動念)하지 않고 태연히 출사(出仕)한다는것은 인신(人臣)의 도리가 아니옵니다。만일 전하의 우대와 신임을 다행으로 뻔뻔스럽게 출사한다면, 종전에 여러 차례 신이 올린 상소는, 다만 전하의 신임을 굳건히 하기위한 신의 계책으로 치게될 것입니다。신에게 대한 비방이 비록 오해나 악의에 기인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오해, 그러한 악의를 있게시리한 책임은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오이까。그러 하고서도 신이 병권을 맡는 자리에 처하여 창병을 호령한다면, 반드시 권세를 마음대로 하고 임금을 업신여기는것이 큰 허물이 아니구나 하는 말이 생겨날 것입니다。청컨대, 신의 죄를 지론해서 좌우의 어떤 관원에게 물으시어 신의 경중을 헤아려 용서해 줄만하다고하면 반열에서 일을 보겠지만, 신에게 죄가 있다면 멀리 내쫓고, 또는 목 베이는 벌을 받아도 감수하겠읍니다』

이에 임금의 답은

『경으로선 당연한 말을 하셨소。그러나 내가 추호라도 여러 신하들에게 경의 죄를 묻는다면 이는 경을 의심하는 것으로 될 것이오。지난날 대간이 한말은 원래 근사하지도 않은 것이니 그 일을 두고 왈가왈부할 것이 못되는 것이오』

T. P. ADVERTISING GROUP
바우종합광고회사
간판부 : 각종간판 · 윈도우 싸인 · 쇼-카드전문
그래픽 디자인부 : 신문광고 · 상업디자인 · 비지네스및 개인명함 · 회사나 단체 마-크 · 각종포스터및 팜프렛
인쇄부 : 도서(책자) · 편집및 출판(광고지 포함)
637A BLOOR ST. W. TORONTO.
☎ 535-0647, 0545
대표 송 관 현

아 세 아 선 물 센 타

SUMMER GRAND SALE (기간 : 81년7월15일~8월31일까지)

북경우황청심환 40% OFF	인삼녹용환 백봉환 40% OFF	당뇨병 특효약 옥천환 30% OFF	중국 길림산 녹용 3 BRANCHS 40% OFF
카나다 산 웅담 40% OFF	여행용 가방 삼손 나이트 30% OFF	물개, 뱀가죽 백 30% OFF	남녀청바지· $ 16.99
고급펜 크로스 30% OFF	피에르 · 카르뎅 와이샤스 30% OFF	피에르 · 카르뎅 벨트 30% OFF	기타 : 게브랄티 비타민, 전기다리미, 고급화장품등등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0-0522, 3 조 지 섭, 김 영 철

異變속출 高校농구

光新商、松都高 꺾고 成德、水原女高 이겨

——大統領旗 全國大會 7일째

센터鄭敏載 혼자35點 短身가드 徐仁淑이 활약

成德 光新

제13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남녀고교 농구대회 제7일째 준결승전이 1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려 남고부에서 光新商高가 松都高에, 여고부에서 成德女商이 水原女高에 각각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전에 진출, 이번대회들어 가장 큰 이변을 일으켰다.

光信商高는 고른 개인기와 팀웍이 잘 다져진데다 센터 鄭敏載(1m87)의 35득점에 힘입어 지난해 2관왕에 이어 올시즌들어 종별선수권 우승팀인 강호 松都高를 잡았다.

松都는 신장이 우세하고 鄭德和와 金潤錫이 나란히 21점씩 뽑아냈으나 후반들어 金潤錫의 골밑활약이 부진했고 슛남발, 역전당했다.

成德女商도 단신가드 徐仁淑(1m59)의 맹활약(16점)으로, 文敬子(m80)를 이용한 포스트플레이에 의존한 춘계연맹전 우승팀 水原女高를 이겨, 祥明女高에 낙승한 崇義女高와 패권을 겨루게 됐다.

◇제7일전적

▲남고준결승

광신상고 83(43 40-39 43)82 송도고

▲동여고부

성덕여상 47(26 21-20 23)43 수원여고

숭의 64(36 28-40 14)54 상명

◇제6일전적

▲여고준준결승

수원여고 77(39 38-24 26)50 송원여실

◇남자 일반 단체전 결승에서 제 3 차단식에 출전한 第一合纖의 金琦澤이 星武의 田永浩에게 강타를 먹이고 있다. 【麗水=徐鍾道기자】

第一合纖 패권차지

全國 종별卓球

自體 南園

【麗水=徐鍾道기자】第一合纖이 제27회 전국종별탁구선수권대회 남일반단체전 패권을 차지했다.

18일 麗水高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5일째 星武와의 남일반단체전 결승전에서 第一合纖은 1차단식의 李在勳이 池龍玉을 2-1로, 2차단식의 金浣이 林海東을 2-0으로 물리쳤으며, 복식에서 金浣·劉時興조가 林海東·田永浩조를 2-0으로, 3차단식에서 金琦澤이 田永浩를 2-0으로 제압, 토틀 4-0의 스트레이트승을 거두었다.

서울信託銀行과 産業銀行, 第一毛織, 東亞建設은 여일반4強에 올라갔다.

여고개인단식 3회전서는 세이크핸드 공격수인 董花의 尹男淑이 국가대표인 裡里一의 梁英子를 18-21, 22-20, 21-19로 격파, 또한번 파란을 일으켰다.

◇제5일전적

▲남중단체결승

전북만경 4-3 인천남중

▲동여중부

부산선화 4-3 서울문영

▲동남고부

부산금성 4-2 충북청주

▲동여고부

경북근화 4-2 서울여상

▲동여대부

동 덕 4-1 효 성

▲동남일반부

제일합섬 4-0 성 무

▲여일반준준결승

서울신탁 4-2 대한항공

산업은행 4-1 부산코카콜라

▲남중개인단식결승

박지현(전북만경) 2-0 남중제원(전북만경)

▲여중개인복식결승

안지미·김영애 2-1 김숙자·최운희(부산삼화)

(부산선화)

▲동남고부

이기웅·길창헌(대전동아) 2-0 김태수·안재형(부산금성)

大會新 또 10개

全國水泳 2일째

제36회 전국남녀초·중·고·대학및 일반별 대항수영대회가 18일 서울운동장수영장에서 속개, 제2일경기서는 대회新10개가 수립돼 전날에비해 저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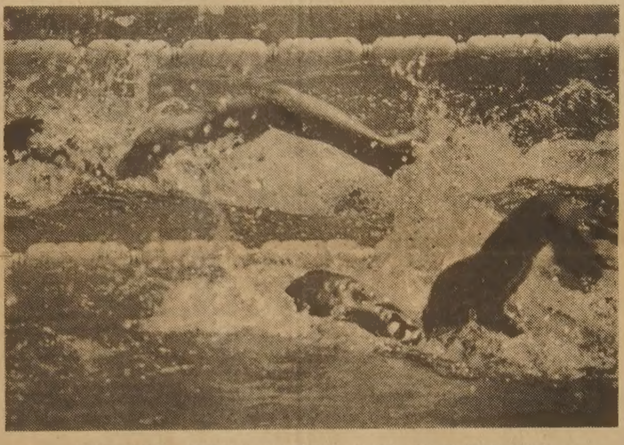
이날 오창균(해군)은 남일반접영 1백m에서 1분0초68을 기록, 한국최고기록 1분0초02에 0.66초못미치는 기록으로 1위를차지했다.

또 남자일반자유형 1천5백m서는 최학수(효성수산)가 18분2초74로 종전기록을 2분33초37 단축하는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는등 3명이모두 대회신을 세웠다.

남대평영1백m서는 이종학(한국體大)이 종전기록 1분15초F를 3초40 앞당기고 1분11초60으로 대회신기록을 세우면서 1위를 했다.

한편 여중부평영1백m서 국가대표 梁貞和(상명)는 1분21초72로 한국최고기록(1분19초09)보다 크게 저조했다.

전날 李勳喆(한체대)은 남대자유형1백m서 56초41로 2번째 한국신기록을 세웠으며, 여고자유형1백m서 金昑希(상명여고)도 1분4초01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남고 자유형 400m에서 서울체고의 김선기(앞)와 삼천포고의 이홍주가 역영하고있다.

◇제2일기록

◆대회신기록

▲남일반자유형1천5백m=①최학수(효성수산) 18분2초74(종전 20분36초11)

▲여일반 평영1백m=①김정숙(한은) 1분24초77(종전1분26초82)

▲남대평영1백m=①이종학(한체대) 1분11초60(종전1분15초F)

▲남중배영1백m=①김효철(평리) 2분30초58(종전2분32초45)

▲남고자유형4백m=①최선용(춘천기공) 4분36초58(종전4분39초8)

▲여고평영1백m=①김지회(이화) 1분20초15(종전1분21초42)

▲여중배영2백m=①최운희(서울사대) 2분32초15(종전2분34초86)

◇제1일기록

◆한국신기록

▲남대자유형1백m=①이훈철(한체대) 56초41(종전56초57)

▲여고자유형1백m=①김금희(상명) 1분4초01(종전1분4초04)

韓國 獨自藝術발전 WP、5千年展특집

【워싱턴17日=聯】古代의 한국은 중국과 일본간의 지리적 교량역할을 했음에도 불구、이들 두 이웃나라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독자적인 예술을 유지 발전시켜 왔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17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스미소니언미술관에서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한국미술5천년전」에 관한 두번째 특집기사를 통해 한국미술이 아시아대륙과 일본의 지리적교량역할을 하면서 특히 중국회화의 주제에서 빌어온 일면의 형식과 방법을 채택했으나 유명한 彌勒半伽思惟像이나 상감청자에서 나타난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특성은 분명히 한국의 독특한 美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金冠의 경우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관람객이 다가가기만 해도 유리진열장안에든 金冠의 장식이 떨릴정도라고 묘사하고 金冠옆에있는 鶴무늬청자꽃병은 현존하는 12세기의 상감청자중 최대의 걸작이라 평가했다.

◇무더위를 식히는 對決 대학부 단체전에서 맞선 檀國大의 양순석(백색샅바)과 全州大의 최동한(흑색샅바)。최동한이 잦히기로 한판을 따내고 있다.

巨人 李鳳杰 스카웃한 忠南大결승에

全國씨름

嶺南·京畿大 꺾고

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이틀째경기가 18일 장충공원에서 열려 大邱永信高가 고부등단체전에서 강적 雲湖高를 4-3으로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중등부개인전서는 高登英(용천중)이 吳東玄(문태중)을 2-1로 누르고 우승했다.

이날하오 진행된남대단체전서는 2m5cm의 거인장사 李鳳杰을 스카웃한 忠南大가 1회전서 지난해우승팀 嶺南大를 4-3으로 물리치고 준결승서도 京畿大를 4-3으로 제압, 결승전에 진출했다.

고등부 永信高 패권

忠南大는 京畿大에 초반1-3으로 리드당해 탈락의위기를 맞았으나 제5번경기에 나선 주장 金光植부터 李鳳杰·신안영등 3명이연달아2판스트레이트승을기록, 토틀 4-3의역전승을거두었다.

내가 설곳은 역시 씨름판

籠球外道에서 되돌아온 李鳳杰장사

2m5cm、1백20kg의 거구를 가진 장사 李鳳杰(24·사진)이 忠南大 선수로 오랜만에 다시 씨름판에 모습을 나타냈다.

『역시 제 갈길은 씨름인 것 같습니다. 한햇동안 방황하며 참 많은 것을 생각했읍니다』

彷徨중 많은것배워 再起戰서 두려움도 "이젠 팬의 聲援 따를뿐"

고뇌가 오히려 인간의정신을 살찌게하는 양식인지도 모른다. 우람한 체격에 어울리지 않게 사색어린표정으로 장사 李鳳杰은 2차에 걸친 자신의 변신(變身)을 되돌이켜 본다.

78년가을 金成律장사의 8년아성을 깨뜨리고 대통령盃대회서 장사타이틀을 차지했던 李鳳杰. 79년2월 씨름명문 大邱永信高를 졸업, 忠南大입학을 희망했으나 학교와 선배들의 만류로 뜻을 꺾고 現代重工業씨름부에 입단했다.

2m5의 엄청난키와 좋은 순발력을 가진 李鳳杰에게 뜻밖의 시련이 다가왔다. 남자농구의 폭발적인 인기와 方烈코치의 권유로 李鳳杰은 79년11월 「골포의 센터」를 꿈꾸며 現代남자농구팀에 입단했다. 그러나 농구볼을 만지며 새로운 회의에빠진 李鳳杰은 끝내 80년7월 농구팀과 결별하고 말았다.

농구장에서 돌아와 처음 씨름판에 나섰던 지난5월 國風잔치의 KBS盃대회서 李는 팬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과연나를 옛날의 씨름장사로 받아줄것인가』하는 두려움으로 경기를 어떻게 치렀는지 몰랐다고 술회한다.

농구는 미는 경기고、씨름은 당기는 경기다. 李鳳杰이 제기량을 회복하는데 최소한 1년은 걸리리라는게 전문가들의 전망. 그러나 李鳳杰은 선수권대회 대학단체전서 예의 돌림배기치기 기술을 자랑하며 팬들의 뜨거운갈채를 받았다.

멕시코와 親善경기 韓國테니스팀 完勝

U大會앞서

【부쿠레슈티=楊森특파원】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한 韓國선수단 남자테니스팀은 17일 부쿠레슈티 테니스클럽에서 벌어진 강호 멕시코와의 친선경기에서 4-0으로 완승, 상위입상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3단1복식으로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金春洽가 미구엘·레제스를 6-2로물리친데 이어 멕시코 최강인 보델 마저 6-1로 꺾었다.

李우룡은 자비엘·콘트라스와의경기에서 6-1로 이겼으며 金暎大·田昌大조는 복식에서 보엘·레제스조를 역시 6-1로 가볍게눌러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다.

韓國이 멕시코를 제압한것은 이번이 처음. 지난79년 멕시코 U대회에서 田昌大·金榮煥선수가 보엘과 레제스에게 각각 2-0으로 완패, 이번 승리로 한국남자테니스의 기량이 향상되었음을 입증한셈.

洪聖千 銀메달 具會暎 銅추가

印尼 아시아柔道

【자카르타17日=聯】韓國은 16일밤 자카르타에서 속행된 제4회 아시아 유도선수권대회 2일째경기에서 남자 86kg급의 洪聖千과 78kg급의 具會暎이 각각 銀메달과 銅메달 1개씩을 추가, 메달집계 銀2·銅2개로 종합순위 4위를유지하고있다.

한편 日本은 이날 86kg급의 야·마사오, 78kg급의 노부또시·히까께, 여자 66kg급의 다베이시·히로미, 61kg급의 사사하라·미찌꼬가 金메달 4개를 따내 메달집계 金7·銅1개로 종합1위를 고수했으며 中國은 金1·銀3·銅4개로 2위를 달리고있다.

후지필름 韓一꺾어

實業배구 白明善 맹활약

【釜山=李洪烈기자】 전국남녀실업배구2차연맹전 사흘째경기가 18일 이곳九德체육관에서 속행, 白明善·李숙子등이활약한 후지필름은 선수부족으로 허덕이는 韓一合纖에 3-0으로승리, 여자부예선B조서 1승1패를기록했다. 韓一은 2패로 결선진출이 좌절됐다.

후지필름은 노련한 白明善이 상대수비 허점을 찌르는 재치있는 강연타와 센터들의 힘이좋은 李숙子의 오픈공격이 위세를 떨쳐 첫세트서만 다소접전을 허용했을뿐 2·3세트서는 시종 여유있게 리드하다 승리했다.

韓一은 權美助·鄭玉南등 1·2년생 풋내기가 악전고투하고 팀의 최장신 鄭和淑(1m78cm)도 무릎부상에도 출장、사력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제3일전적

▲여자B조

후지필름(1승1패) 3(15-7 15-2 15-12)0 한일합섬(2패)

◇제2일전적

▲여자A조

미도파(2승) 3(15-1 15-11 16-11)0 효성(2패)

석유공사(1승1패) 3(15-11 16-14 15-10)0 선경합섬(1승1패)

企銀、商銀물리쳐

金融團축구 2對1逆轉勝

企業銀行은 18일 효창구장에서 속개된 제12회 대통령배 금융단축구대회 2일째 예선B조경기에서 商業銀行과 겨뤄, FW金城南의 2골로 2-1로 역전승, 첫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한편 서울신탁銀行은 住宅銀行을 2-1로 물리쳐 1승을 기록했다.

商銀은 전반전 29분에 선제골을 기록했다. 미드필드 중앙에서 FW李南洙가 전방의 李正日에게 볼을패스했다. 국가대표출신의 李正日은 이볼을 잡아 문전으로 치고들며 企銀수비 1명을제치고 강슛, 골인시켰다.

企銀은 후반들어 22분에 동점골을 뽑아냈다. HB陳龍吉이 페널티에어리어 우측에서 문전센터링한 볼을 이날의 수훈 金城南이 헤딩슛으로 골인시켰다.

1-1동점에 성공한 企銀은 여세를몰아 맹공, 32분에 결승골을 뽑았다. 商銀 수비진이 GK에게 백패스한볼을 金城南이 뛰어들어 차단, 노마크찬스에서 골인시켰다.

◇제2일전적

▲B조

기업은행(1승) 2(0-1 2-0)1 상업은행(1패)

서울신탁(1승) 2(1-1 1-0)1 주택은행(1패)

國民銀 5전전승

訪日 女子농구팀

日本을 원정중인 國民銀行 여자농구팀은 15일 나라(奈良)縣 전국체전 여자 대표팀과 가진 4차전서 70-54로 승리, 최종 5차전인 시가(滋賀)縣 전국체전 대표팀에게는 83-62로 대승했다고 18일선수단이 알려왔다.

國民銀行은 訪日경기서 5전전승을 기록했다. 선수단은 19일 自由中國에 도착, 8차례의 경기를 갖는다.

◇전적

▲4차전

국민은행 70-54 나라현대표

▲최종5차전

국민은행 83-62 시가현대표

한국、17-0 大敗

韓·美야구 始終무성의·拙戰

제2회 韓美대학야구선수권대회최종7차전이 18일서울운동장에서열려 美國대학선발은 파치오렉의 3점、존스와 스텐하우스의 2점、슈미트의 솔로등 4개의 홈런과 20안타로 17-0으로승리、고별전을 장식했다. 한국은 5차전에서 4승째를올려우승했으며 美國은2승5패를기록했다.

대회최우수선수상은 1·2차전서 연속 결승홈런을 날렸던 朴鍾勳이、우수투수상은 3승1패를 올린 尹學吉이 차지했다.

◇최종 7차전

미국(2승5패) 002 005 ××× —××

한국(5승2패) 000 000 ××× —××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 금주의 스페샬〉
(Cash & Carry에 한함)

CASH & CARRY SPECIALS FOR THE PERIOD JULY 20 to JULY 31

Coca Cola, Hi-C, Sprite 10 oz. Cans		Net 5.99 Case
Allan's 3 for 5¢ Longtubes 288 count		2.20 Box
Fruitella	36/25¢	4.77 Box
McToffee	36/40¢	9.50 Box
Y & S Cigars, Pipes, Chews	48/10¢	2.89 Box
Dad's Soft Oatmeal Cookies	12/30¢	2.09 Box
Lifesavers Lollipops	96/10¢	5.99 Jar
Garbage Candy	24/25¢	3.75 Box
Gobstoppers	24/25¢	3.85 Box
Moirs Bag Candy	24/25¢	3.45 Box
Pocket Kleenex	12/12's	14.09/case
Chapstick	24's	11.32 Card
Hickory stick Fire Starters		67¢ each
Light Bulbs (GE)	12/2's	7.59 case

※세일즈맨모집 2명 가게에 경험 있으신분 환영

920 CALEDONIA RD. 789-7214
MR. 김
DOMINION SMALLWARES

中東동문야유회

중동동문 여러분을 여름 야유회에 초대합니다.

일　시：7월25일(토)
장　소：모닝사이드·파(스카브로)

회장단에서 음식및 드링크·상품을 전부 준비 하였사오니 전부 참석 바랍니다.

연락처：
회 장 댁：742-5672
부회장댁：363-3687
총　무：439-3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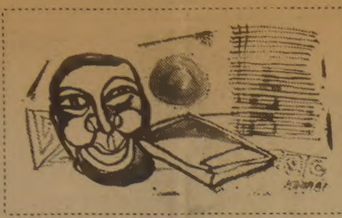
중 동 동 창 회

아침에

「外國것」과 「우리것」의 調和

이왕 부딪치려면 철저히 부딪쳐라

海外研修·英語회화 論難은 國際化 과정



A兄, 이 무더위에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은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해외 각국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 각급 학교의 영어 교육을 좀더 실용적인 것으로 바꾸고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중국어·러시아어를 권장한다는 이야기, 한국에서 일본어 世代가 退潮하고 있는 것을 일본에서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신문에서 이런 화제를 주워 읽으면서, 언젠가는 와야할 것이 기어코 왔구나, 또 한단계 뛰어넘는 國際的인 새 時代가 펼쳐지려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절실합니다.

崔致遠이 銘文을 쓴 9세기의 眞鑑國師碑가 지금도 河東雙溪寺에 남아있읍니다만, 여기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 「道는 사람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나라를 달리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東人의 아들들은 佛이건 儒이건 서쪽으로 大洋을 건너가 重譯을 해서라도 學에 종사하였다」고.

『西遊記』로도 유명한 당나라 玄奘의 高弟로 본국(신라)어·중국어·범어, 그리고 아마도 티베트어를 포함한 6개국어에 능통했다는 7세기의 신라승 圓測, 또 印度와 西域의 거의 전역을 편력하고 돌아와 당나라 密教의 正統이된 8세기의 신라승 慧超, 이런 著例는 접어두고라도,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求道者들이 낯설고 물선 異域으로 향해갔던가를 『海東高僧傳』 같은 것이 바로 보여주고 있읍니다.

이제는 구도자만이 아닙니다. 온갖 職種의 사람들이 국제적인 協力과 競爭의 現場속으로 뛰어들지 않을수없게 되어가는가 봅니다. 그러자니 언어를 비롯하여 외국에관한 活知識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겠지요.

× ×

A兄,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문제가 있을법 합니다.

젊어서부터 줄곧 서양것을 공부해온 兄이 얼마전에 「진작 우리것 공부를 좀더 안해둔것이 후회」라고 하던일, 그때 내가 「명색 우리것 공부를 해왔다는 나는 서양것을 소홀히 한것이 후회」라고 했던일, 그리고는 「피차에 욕심이 過하기는 한데 그런후회는 정말 후회」라고 서로 맞장구를 치면서 약간 쓸쓸해졌던 일을 기억하시겠지요. 외국의것과 우리의것이 다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調和하는가 하는 것이겠읍니다.

며칠전, 夏期學校공부를 위해 아프리카 西岸의 아이버리 코스트에서 온 우리 동포 女高生을 만났읍니다. 불어와 영어가 유창한것도 귀엽고 부러웠지만 1년째 그곳에 가서 산다는 이 학생이 서울 표준어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는 데는 참으로 대견하다는 느낌이었읍니다. 집안에서는 부모와 계속 母國語로 대화를 해왔다고 하더군요.

우리의 民俗·民藝 혹은 각지 土産의 飮食같은것을 중심으로 했던 지난번 「國風'81」 놀이가 汝矣島에 매일 수십만의 군중을 끌어들일수 있었던 것이 한편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떨수 없는 한국인이기 때문이겠지요. 「우리의 詩文을 타국(중국)의 글로 쓰면 十分相似하게 할수는 있지만 결국은 앵무새가 사람말을 하는것이나 다름없다. 樵童汲婦가 주고받는 노래는 비록 촌스럽기는하나 유식한 사대부의 詩賦라는것과는 함께 논할수없는 진실성이 거기에 담겨있다」고 한 金萬重의 명언도 그것이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외국의것에 자주 부딪쳐야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할 불가피한 요구가 있읍니다. 그것이 어제오늘부터의 일도 아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人口가 한결 더 늘어나게 될것 같지 않습니까.

× ×

A兄, 이럴때에 우리가 흔히 公式처럼 하는 말이있지요. 傳統에 뿌리를 박아 그 主體性으로 外來의것과 接觸하고 흡은 그것을 消化해야한다구요. 會話교육을 좀더 강화한다, 해외여행의 길이 좀더 넓어진다는 것을가지고 전통이나 주체성까지 들고나설 일은 아니지만, 외국의것과 우리의 것에 대한 내 나름의 평소의 느낌을 여기서 잠깐 건드려두고싶습니다. 근래에 특히 드러나지고 있는 傳統文化에 대한 관심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것이 경우에 따라 단순한 尙古·自尊·因襲등과 연결되는 수가 없지도 않은것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우선, 전통이 「統을 傳해온것」이라는 글자 그대로 「新式의」것 아닌 「舊來의」것임은 당연하지만, 오래된 文化遺産이면 다 전통인가 하는 의문이 있읍니다. 그보다는 도리어 오늘날도 무언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전통이 아닐까요. 옛날의 「素樸」, 한동안의 「倭色」, 혹은 오늘날도 가끔 문제가 되는 피상적인 「洋風」, 이런것은 전통일 수도 없고 전통이 되어서도 안되겠지요.

또하나, 전통이 「外來의」것 아닌 「우리 固有의」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될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남에게서 얻어오기도 하고 남에게 전해주기도 하면서 이룩되어온 것이 우리의 文化이었읍니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것이란, 예컨대 巫俗과 같이 우리가 받아들인지 매우 오래된 基層的인것, 혹은 風流道와 같이 우리가 獨創的인 전개를 보인것…등등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외래의」것을 받아들여 소화하고 또 받아들여 소화하면서 한 아름 한 아름씩 굵어져온 것이 우리의 傳統이었읍니다. 「외래의」것이라 하여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도리어 大凡하게 안아들여야할 일면도 있을듯 하군요.

어느 나라치고 스스로의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데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전통의 문제, 주체성의 문제에 매우 민감한 경향이 없지않은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가 처음 近代化過程으로 들어섰을 때부터 「전통문화의 自體展開로서의 근대화」라는 방향에 성공했더라면 옛것과 새것의 調和가 훌륭히 이루어졌겠지만(물론 그러한 방향의 성공도 없지 않지만), 대세로 보아서는 결국 「異質的인 서양근대문화의 受容과 그 土着化」라는 방향이 主流가 되지 않았읍니까. 더우기 우리가 한동안 받아들인 서양문화란, 일본에 의하여 번역된 亞流서양문화가 주(主)였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상당기간은 그 強占아래 우리자신에 의한 우리문화의 건설이 지극히 제약을 받았읍니다.

외국것에 大凡해야 하겠다, 아니 좀더 적극적이어야 하겠다고 해서, 전통을 깎아내리려는 뜻이 아닌은 물론입니다. 繼承·發展시켜야 할 것은 당연히 그래야 하고, 계승 발전까지는 아니더라도 保存·整理·研究되어야 할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의 말입니다.

× ×

A兄, 이야기가 잠시 빗나갔읍니다만, 외국것에 부딪치려면 철저하게 부딪칠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은 물론 이겠지요. 서양것을 줄곧 공부해오신 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우리도 언젠가는 누비고 다니라고한 「六大洲와 五大洋」은 開化期의 문자였지만, 이제 그것이 현실로 다가선 時點에 왔읍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제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합니다. 한국인이면 한국인으로서의 主體性을 누구나가 간직하고 있고, 다소의 消化不良에 걸리더라도 그生來의 주체성으로 쉬이 극복할 수 있다고 나는 낙관하고 있읍니다. 「우리 것」에 의한 스크리닝에 앞서 「외국 것」에 대한 彈力있는 對處가 갈수록 바람직하다는 것이 나의 자그만 소견입니다.

千寬宇

◇千寬宇씨 약력=56세, 忠北堤川生. 서울大史學科卒, 한국일보·朝鮮日報논설위원, 民國日報·東亞日報편집국장, 東亞日報主筆·理事역임, 현재 한국일보編問·民族統一協議會 議長. 著書「썰물밀물」「言官史官」「韓國史의 再發見」등.

「하늘의 별따기」를 해냈다

6살때 渡日…刻苦19年의 榮光

自慢으로 憤涙…냉정찾아 頂上

日棋界 趙治勳시대 突入

【東京17日=宋孝彬특파원】 무엇이든지 세계에서 제1인자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렵다. 바둑이 중국에서 비롯됐지만 쉬류인 중국을 물리치고 일본에서 바둑은 전성하고 있다.

趙治勳9단은 이 일본에서 名人位를 작년에 따메어 이번에는 本因坊의 바둑을 따내 「바둑올림픽」에서 金메달을 2개나, 한꺼번에 차지한 셈이다. 더우기 일본의 棋戰중 가장 권위있는 名人戰(아사히)과 가장 전통있는 本因坊(마이니찌) 그리고 가장 상금이 많은 棋聖등 3대 타이틀가운데 2개를 한꺼번에 쟁취, 명실공히 일본棋界에 趙治勳時代를 연것이다.

趙名人은 本因坊타이틀을 쟁취한후 16일밤 『영원한 승리자는 없으며 그렇다고 영원한 패배자도없다. 오직 영원히 바둑을 대국할뿐이다』고 승자로서의 겸허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는 이어 『이제까지의 바둑은 약점과 실수투성이의바둑이었다. 운이 좋아서 명인과 본인방을 땄지만 앞으로는 5년동안 더욱 열심히 바둑공부에 전념하여 훌륭한 기사가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냉엄한 승부세계에서 이처럼 두 타이틀을 쥔 趙9단은 6살때 현해탄을 건너온후 만리타국에서 허물 깨우는 자기수양을 계속했다.

本因坊의도전권을7연승으로 따내고 본전에서 3연승을 거두어 가장전통있는 本因坊타이틀을 한발앞에놓고 2連敗를 계속했을 때 趙명인은 한때 실의에 빠진 적도 있었다.

지난 9일 하꼬네 고오라(強羅)에서 열린 제5국에서 趙명인은 처음부터 다께미야 본인방을 압도하여 그의 승리를 모두 확인했었다. 그러나 끝내기 1점의 실수로 바둑이 역전패했다. 入神의 경지라는 9단 趙명인도 역시 하찮은 실수를 범하는 인간이라는것을 바둑애호가들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바둑이 끝나자 욕기도 하지않은채 자기방의문을 잠그고 호곡했다.

패배에 대한 분함보다는 자기수양이 부족한데대한 자기증오심을 눈물로써 달래는 것이었으리라. 그는 나중에 자기방에서 혼자 복기를 했다. 다음날 아침 특파원들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趙9단의 방을 노크했으나 응답이 없었으며 전화를걸어도 받지 않았다.

『목숨을 걸고 두다』라는 자서전에서 趙명인은바둑을 이겼을때의 기쁨보다는 패했을때의 분함이 못견디어 죽고 싶다는 말을 몇번이나 되뇌었다」고 술회한 것이 생각났다.

「혹시 자살…병인이 그렇게 옹졸한리가 있는가」 특파원들은 이런말을 주고받으며 서성거리고있을때 趙명인이 홀가분한 차림으로 불쑥 나타났다.

『꼭 이거야한다는 부담감을 갖지말고 앞으로의 2판은 열쉬히 두어달라』는 특파원의 격려에 趙명인은 잠을 설친듯 꺼칠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고맙습니다』고 몇번이고 인사한뒤 혼자 아침 산책길에 나섰다.

정상을 도전하는 趙명인의 뒷모습은 그렇게 작아보일수가 없었다. 냉엄한 승부의 세계를 경험해본 느낌이다.

그는 本因坊과 名人을 따낸뒤에도 겸허한 자세로 『아직도 만족할만한 한판의 대국을두어 보지못한약자이다. 머릿속의 구조대로 바둑을 둘수있기에는 5년이고 10년이고 더 걸릴것같다』고 말하고 『기필코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훌륭한 바둑을 두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다짐했다.

6살때 일본에건너온 그는 한국말을 모두잊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있으나 本因坊이된뒤 특파원과 일본기자들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그는 간단한 한국말로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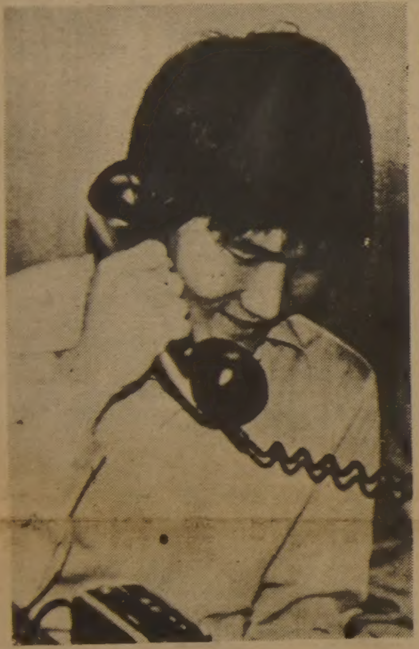
그는 나중에 한국말을 잊지않게된 비결로서 『바쁜틈에도 꼭시간을 낼수밖에 없어 화장실에 한국만화와 잡지등을 수북이 쌓아놓고 매일30분동안 한국말공부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기를 낳아준 조국한국과 자기를키워준 일본을 모두 사랑하며 한일양국이 서로친하게 지내기를진심으로 바란다』면서 『피는물보다 진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스스로의 보습을지키고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상대방인 일본을 이해하는 극기의 명인 趙治勳은 3백65점의 바둑판에 한국의얼을 계속 심고 있다.

趙治勳 年譜

▲56년6월20일=釜山출생 ▲62년8월1일=渡日, 기다니(木谷實) 道場에 입문 ▲68년2월=입단(만11년8개월로 일본기원최연소입단기록수립) ▲〃10월=2단승단 ▲69년3월=3단 ▲70년10월=4단 ▲71년10월=5단 ▲73년7월=신예토너먼트전우승 ▲〃9월=6단 ▲75년2월=일본기원선수권전준우승 ▲〃4월=프로10걸전우승 ▲〃10월=7단 ▲〃12월=朝日8강전우승 ▲76년12월=王座타이틀획득(王座타이틀사상최연소) ▲77년11월=결혼 ▲78년6월=8단 ▲79년8월=棋聖位타이틀획득 ▲80년11월=名人타이틀획득 ▲80년12월=일시귀국 銀冠문화훈장받음 ▲81년4월23일=9단승단(최연소 최단기간 승단기록) ▲81년7월16일=本因坊타이틀획득



매일 母國語공부…화장실에도 한국만화 쌓아두고

◇本因坊位를 차지한 趙治勳9단이 축하의전화를 받고있다.

本因坊戰이란…

每日新聞 주최로 最高 전통·權威 자랑

棋聖戰·名人戰과 함께 日 3大타이틀

日海가 德川幕府보호받은 本因坊家 창설

本因坊戰은 讀賣新聞주최의 棋聖戰, 朝日新聞의 名人戰과함께 일본의 3대타이틀 가운데하나로 每日新聞이 주최하고있다.

本因坊이란 원래 京都의 寂光寺에 있었던 塔頭의하나로 일본 戰國시대 초대本因坊算砂가 바둑으로 천하를 통일하기 직전의 스님신분으로 있을때 가장좋아했던 국이다. 호는 日海가 전국에서모인 바둑의 高手들을 전부 물리친 첫대결때 당시 실력자 오다·노부나가(織田信長)로부터 「名人」칭호와함께 本因坊家를 창설, 도꾸가와 幕府의 보호를 받으며 바둑의 시조가되었다. 이밖에 바둑의 家門으로서는 井上·安井·林등 3家가 있었으나 明治維新때 幕府시대가 끝나면서 이들3家는 몰락했으나 本因坊家만이 1930년대까지 지속됐다.

그러나 제21대 本因坊인 슈사이(秀哉)는 1939년6월 후계자를 지명하지않고 일본기원에 本因坊을 타이틀으로 내놓음으로써 오늘의 本因坊戰으로 발전했다.

名人은 幕府시절 바둑4家의 대표가 大將軍앞에서 御城棋를 두어 승리한 이에게 주어지는 칭호. 幕府는 승리자에게 碁所를 운영케해 바둑의 段位免狀의 認許와 이에따른 사무를 관장케 했는데 名人칭호를 얻기위해 피나는 死鬪가 이들 4家사이에 계속돼왔다. 그러나 이들 4家중에 本因坊家만이 가장 많은 名人을 배출해냈다.

名人戰은 1942년 讀賣新聞이 1942년 창설한 棋戰으로 도중 소송이 붙어 75년 이를 朝日新聞에 넘겨주고 棋聖戰이란 타이틀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 일본에는 16개의 크고작은 棋戰이있는데 상금규모로 가장 큰棋戰은 棋聖戰이며 역사와전통으로는 名人戰과 本因坊을 친다.

따라서 이3개타이틀을 일본에서는 「빅3」이라하는데 상금을 보면▲棋聖戰은 승자 2천만엔, 패자4백만엔, 대국료는 타이틀보유자 6백만엔, 도전자 4백만엔 ▲名人戰은 승자1천5백만엔, 패자3백만엔, 대국료는 타이틀보유자 6백만엔, 도전자 4백만엔 ▲本因坊戰은 승자1천2백만엔, 패자 2백40만엔, 대국료는타이틀보유자 5백만엔, 도전자 3백30만엔으로 되어있다.

이밖에 10段戰 天元戰 王座戰 碁聖戰의 순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모두합쳐 「7大棋戰」으로 친다.

일본에는 현재 일본기원과 關西기원등 2개 기원산하에 4백명의 전문기사가 있으며 入神의경지인 9단진만도 58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가운데 3대타이틀을 한꺼번에 쥔 기사는 없었으며 두타이틀을 함께보유한 기사는 趙治勳9단을 합쳐 지금까지 4명밖에 없다.

두타이틀은 名人과 本因坊으로 사까다9단(坂田榮男)이 지난63·64년 2년간에 걸쳐, 林海峰9단이 69년 1년간, 이시다9단(石田芳夫)이 74년1년간 이를보유했었다. 그런데 棋聖戰은 후지사와9단(藤澤秀行)이 제1기때부터 5기에 이르는 현재까지 타이틀을 고수하고 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8-2361

변모된 美만화속의 女性像

自由상징·家庭主婦·글래머걸등서 「鬪士」·「公民權운동」등 分野넓어져

여성은 이제 신문의 만화에서 「자유」만을 상징하지 않는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투사」, 「공민권운동」, 「지구」등 갖가지를 의미하게되었다.

최근 미국오하이오州立大 캐머런·메이어 교수등 여성사회학자들은 지난 1백년간 신문의 만화에 등장한 여성상의 변화를 조사,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분석자료로 뉴욕·타임즈, 시카고·트리뷴, 아틀랜타·콘스티튜션, 워싱턴·포스트, 컬럼버스·디스패치등 전통적인 신문5개紙에 실렸던 정치만화 5백77편을 택했다. 이만화들은1870년~1976년사이의 미국독립기념일과 관련된만화들이다.

분석결과 등장인물이 가정부인과 글래머걸로 양극화됐던 옛날의 경향이 차츰 엷어지고 각분야에서 활약하고있는 여성들이 폭넓게 등장하고 있다.

등장인물을 남녀로 나누어 보면 남자가 5백77편중 5백19편을 차지, 압도적으로 많다. 남자는 조지·워싱턴, 독립선언의 서명자, 독립전쟁의 용사들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비해 여성은 군중 또는 군인을 전송하는 가족등의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가 25%나된다.

만화에 등장하는 남자가 가장많이 상징하는것은 엉클·샘(샘아저씨란 별명을 가진남자로 미국정부를 의미함)으로 1백19편의 만화에 등장한다. 여성은 「자유」를 상징하는것이 가장 두드러지는데그것도13편에불과하다.

시대별로 보면 여성상의변화가 눈에띈다. 한예로 1890년대에서 1940년까지 등장하는 여성의 대부분은 머리를 틀어 매거나, 크고 우스운 모자를썼거나, 뚱뚱하고 앞치마를두른 전형적인 어머니타이프였다. 이와달리 1950년대이후는 각분야에서 활동하고있는 여성들이 등장한다. 여성을 섹스의 상징으로 묘사했던 경향도 많이 사라졌다.

또 전에는 독립전쟁의 용사는 남성으로 결정돼 있었다. 이제는 여성도 독립전쟁에 참가했다는 역사적사실때문에 남성중심의 사회체제에 항의하는 만화에 여자군인이 등장하고있다.

이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메이어교수는『정치만화를보고 社說을 읽는 여성이 늘어남에따라 옛날과같은 남성중심의 만화만으로는 독자를만족시켜줄수 없게되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저널오브·커뮤니케이션誌】

◇『제퍼슨 대통령! 이 독립선언서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써있는데요』 남녀를 차별하고 있는것을 비꼰 풍자만화이다.

한국일보 詩壇

보림사 가는 길

釋慈明

보림사 가는 길은 뻐꾹새 우는 숲
길이더라.
하 많고 많은 길중에 오늘은 푸른
숲길이더라.
다산(茶山) 아래엔 차 한잔에 도가
있더라.
어린아이만 수부룩하더라
쑥이 푸르더라
가도 가도 없는 길이 있더라
볼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길이 있
더라.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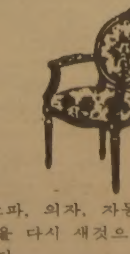
MODERN FURNITURE
ecosys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8월휴가 모국방문 특별요금안내

출발일자 : 8월17. 14. 21. 28일
(뉴욕경유, KAL편)
요　금 : 성인=카나다달러
$1192.50(왕복, 세금포함)
소인=카나다달러 나
$651.25(왕복, 세금포함)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여행사
593 BLOOR ST. W. TORONTO
(B)531-4607 (R)487-8088
성낙윤

왜 비싼가구를 삽니까
가구재생 공장



낡은 소파, 의자, 자동차 시트, 각종 가구등을 다시 새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오래된 물건이라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돈을 SAVE하는 길을 생각합시다.

TAYLOR'S QUALITY CHESTERFIELDS
536-1480
1009 DUPONT ST. TOR.
(DUPONT × DOVERCOURT)
한국일보사 엮건물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쿨쿨 | 퉁 | "여보! 그게 무슨소리 였어요?" 쿨쿨 | "무슨 소리말이야?"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영원한 감동 40周忌 맞아
『蘭坡의 집』 짓는다
「생애와 그 음악」 傳記출판도 계획

「봉선화」「고향의 봄」등 노래로 우리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蘭坡 洪永厚선생(1898년4월10일~1941년8월30일)이 세상을 떠난지 40년이 됐다. 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위해 만들어진 蘭坡기념사업회는 33년5월 新樂會에서 발행한 洪蘭坡친필 蘭譜의 「朝鮮歌謠作曲集」을 影印本으로 출판, 19일 하오6시 YWCA 묘우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다. 이 출판기념회에서는 水原의 蘭坡합창단과 테너 이유선씨가 「朝鮮가요작곡집」에 수록되어있는 15곡의 노래를 모두 부른다. 鷺山詩調에 曲을 붙인 이 15곡중에는 「봄처녀」「고향생각」「옛동산에 올라」「장안사」「성불사의밤」등 낯익은 노래, 자주 부르는 노래들과 지금은 많이 잊혀진 노래들이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것같다.

19일 「朝鮮가요작곡집」 출판기념회
봄처녀·고향생각등 수록된 15曲불어

그의 40周忌를 기념하기위해 올해 특별히 계획되고있는 사업은 「蘭坡의 생애와 그음악」이란 제명의 전기출판과 그의 유품보존을 위한 「蘭坡의 집」 건립준비등.

그의전기는 현재 羅運榮씨 집필로올해안에출판을서두르고있다. 「蘭坡의 집」 건립은 그가 생전에 쓰던 바이얼린은 물론 연필한자루 메모지 한조각까지 소중히 간직해온 미망인 李大[illegible]여사(68)가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illegible]

『올해안으로 확실한 계획만이라도 세워보자』는 것이 기념사업회의 소망이다.

「朝鮮童謠百曲集」「朝鮮가요작곡집」등의 출판, 바이얼린독주회, 음악잡지「音樂界」창간, 京城중앙방송국관현악단조직지휘, 난파트리오 조직활동등으로 선구자 역할을한 蘭坡의 뜻을 기리는 기념사업은 그동안 서울만이 아니라 그가 태어난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지방음악계까지 확산되었다.

지금까지 난파기념사업회에서 해온 일은 65년「朝鮮동요百曲集」재발행, 그의 탄생70주년이던 68년에 KBS방송국마당에 동상전탑, 수원팔달공원에 「고향의봄」 노래碑 건립, 69년 고있는것이다.

음악제와 흉부흐는 예총수원지부가, 글짓기대회는 文協수원지부가 주최를 하고있다.

『난파기념사업이 수원과 그가태어난 시골화성마을을 중심으로 전개돼서 더욱 뜻이 깊다고 생각해요』 尹石重씨의 자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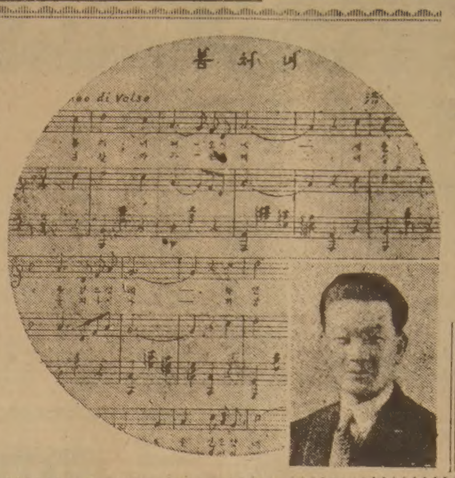
수원에 시민회관이 서울러 생기고 그랜드 피아노까지 두게된 것과 화성에 난파회관이 건립된것은 모두 洪蘭坡때문. 65년 조직된 난파합창단은 매해 5~6회의 공연을가졌고 지난해11월에는 공군군악대와의 협연으로 서울세종문화회관대강당무대에까지진출했다. 『난파음악상은지금까지 정경화 김영욱 정명훈 강동석 백건우 이성숙 박영희 김남윤씨등이 받았고 시상식은 꼭 수원에서 蘭坡음악제 음악콩쿠르와 때를 맞추고있죠.』

『故安益泰선생께서 생전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청소년음악운동을 일으키고 싶다고 말씀하신적이있죠. 저희는 난파 기념사업이수원을 중심으로 전개돼서지방음악계의 자극을 주고있다는것에 특히 보람을 느낍니다.』 尹石重씨는79년 수원에 관현악단이 생긴것 역시 난파기념사업이 촉진제가 됐으리라고 말했다.

蘭坡40주기인 올해에「난파의집」을 건립시키려는 꿈이 이뤄질수 있을는지….

【吳熙奮기자】

바이얼린·연필·메모까지
生前의 遺品보존하기로



◇洪蘭坡타계 40주기를 맞아 영인본으로 펴낸 「조선 가요작곡집」(사진은 故洪蘭坡)에 있는 친필악보.

◇自然石 훼손한 紀念碑 丹陽八景의 하나인 舍人岩입구건너편 기암절벽아래 자연석위에 丹陽郡이 관광도로포장기념으로 도지사·군수이름을 새겨 만들어놓은 기념비。기념비를 세우는것이야 나무랄수없겠지만 자연석을 훼손해서까지국해야만했을까。특히 자연보호에앞장서야할 행정당국에서 말이다。【堤川=聯】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인

좋은 농장, 좋은 골프장
최고대우 1000마리당 25-30 달러
☎ : 532-3637 미스타 계

지렁이 잡이구함(유경험자에 한함)
최고가격 1000마리당 30달러
☎ : 255-0730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 531-0474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
좋은 농장에서 아주 좋은 대우 해 드립니다.
4계절 계속 있읍니다.
☎ : 465-9929 CALL GEORGE
C & L LIVE BAIT CO.

가게에서 일하실 남자 풀타임 구함 :
하루10시간 근무, BAY + BLOOR지역
☎ : 968-9221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풀, 파트타임
☎ : 742-0800 미스타 차

RECEPTIONIST FOR DENTAL OFFICE
EXPERIENCED PREFERRED BUT NOT NECESSARY. MUST BE FLUENT IN ENGLISH & KOREAN.
☎ : 781-9591, 535-2798

매매및 양도

벡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 + 로타리오
☎ : 783-1984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61 MAIN ST. 편의한 문의는 직접 내방 바람
☎ : 694-7848

가게 급매 : 주매상 $4,500, 윗층에 3베드룸 있음
가장 적당한 OFFER자에게 양도코자 함
☎ : 531-1067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1801 LAWRENCE AVE. E.
SCARB.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교통이 편리한곳에 위치한 주택매매및 전세 :
Lakeshore & Royal York Rd.근처 Central Aircon., 4 Rms, Rec. Rm. ☎ : 255-6849, 368-9016

버라이어티 스토아를 SET UP하실분
렌트 $350, 리스6년+6년 옵션
☎ : 461-9236 JACK PONG

포터블 켄·모어 세탁기 2년 사용
포터블 뷰락 드라이어 6개월 사용
☎ : 497-9180

그로서리 및 야채가게 매매 :
주매상 $7,000-$8,000(5일영업)
리스 4년+5년 옵션, 렌트 $1,200(2500sq. 피트)
자본이 있고 경험있으면 더 높은 이윤및 매상가능
☎ : 368-1917

FIRE PIT햄버거 식당
주매상 8천불~만불, 가격27만불, 리스20년,
렌트 천7백불 현찰13만불 요함, 순이익8천불
☎ : 1-705-748-9722 피터보로
미스타 김 또는 미스타 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격 $59,900, 주매상 $5,600, 렌트 $1,100
리스4년+5년 옵션가능함 ☎ : 1-579-4507(WHITBY)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 $275
☎ : 635-1038

CONVENIANCE STORE IN BUSY PLAZA
(ST. CLAIR E. × 버치마운트)
ASKING $69,000, 리스8년6개월, 주매상 6,500이상
HELLENIC REALTY
☎ : 766-2020

그로서리가게및 건물급매 :
2층 벽돌건물이며 경쟁이 없고 장래성이 많은
좋은 위치에 있음.
모게지 1st. 9.5%, 2nd 12.5%
458 CALEDONIA RD. ☎ 781-7080

콘도미니엄 매매
2 베드룸+큰 리빙룸및 부엌 $57,000(협의가능)
냉장고, 스토브, 디쉬워셔.
HWY 427×RATHBURN 오후6시이후
☎ : 622-7162 미스타 리

고급 BEDROOM SET급매 :
경대, 옷장, 2 NIGHT테블(QUEEN SIZE) 침대.
G. E. 냉장고, 커텐, 전축등 급매
☎ : 769-4366(오후5시이후)

FISH & CHIPS스토아 매매
오랫동안 잘 경영해온 비즈네스 매매코자 합니다
(가게+현대형 아파트)
모개지가 좋고 비지네스 시작하자 곧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읍니다. 파는 사람이 새로운 경영자를 위해 도움을 줄것입니다.
관심있으신분 연락 바랍니다.
☎ : 751-7333
GOHEEN REALTY LTD., REALTOR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 •소파 •체어 •타일 •하드우드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 이삿짐 나라운수
피아노, 쿨러 ☎ : 630-6602

식당

大生園
짠뽕, 각종만두, 두부탕, 닭튀김, 왕새우 볶음,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볶은밥, SEA FOOD.
월~목 11 : 30AM~1 : 00AM, 화 : CLOSE
금, 토 10 : 30AM~2 : 00AM, 일 2 : 00PM~12 : 00PM
☎ : 929-5048, 961-3539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한방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꽃집

〈제인·파크 꽃집〉
*각종 꽃종류, 조화, Plants취급. *꽃꽂이,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어디든지 배달가능합니다.
☎ : 769-0609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미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업륜)
☎ (B) 661-5667, (R) 742-9450 MR. 김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여권 분실

"여권분실" : FINCH × BATHURST 아파트 안에서 분실하였기 공고합니다.
☎ : 630-2450 조 영 주

"여권분실"
교포 여권 분실을 공고합니다.
성명 : 나 복 희 연락처 : 696-6415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에어콘·히팅·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김용환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ANCHOR AUTO BODY
● 안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기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병원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코스를 택하고 싶으신분
시간당 $7, 일주일 코스
☎ : 961-1057

새한칼라 현상소
61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Can Am Coin Investments Ltd - 25년간 경력 -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구혼

26세로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남자로 앙뜰한 신부를 찾고 있읍니다.
☎ : 1-387-2327 미스타 김